기존 동관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복재건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2월 22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금주의 법구

여러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
나다. 〈법구경〉

법회 안내

달마사 (02)521-5001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서예법회 매주 목, 금 오후2시

호압사 (02)803-4779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시자암 (02)825-1046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학생법회 매주 일 낮1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정토포교원 (02)737-0853
대학생법회 매주 월 오후7시30분
아미륫다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청년정토법회 수 오후7시30분
거사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토화랑단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라훌라(중고등부) 일 오전8시

천안 연대선원(0417)551-2010
일반법회 초하루, 보름(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월 오후8시

양양 문수사(0396)671-8889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월 둘째, 넷째 일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18일 오전11시

밀양 대승정사(0527)355-484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목 오후7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지방자치 '강건너 불' 아니다

교계, 시민 통제기능 주도…신도회 앞장서야

김병준 교수, 교구본사 주지 연수회서 강조

불교계는 눈앞에 닥친 지방자치제를 강건너 불보듯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불교계도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월 20~22일간 직지사 연수원에서 개최된 제 1회 조계종 본사주지 연수회에서 김병준교수(국민대)는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주제 강연에서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에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김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 적절한 자치권능 △ 지역내 특정 이해관계세력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경영능력 △ 시민적 통제 확보 등 네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에서 시민적 통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한 김교수는 "선거가 선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인해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법인 시민참여 내지는 통제로 현재의 대의제적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통인 부천 YMCA가 주도해 성공시켜 지방자치 역사의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조례' 제정을 예로 들며 김교수는 대조적으로 불교계가 그동안 시민참여 내지는 시민적 통제와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불교계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조류속에 민족이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고 있는 이때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지론. 그는 지역사회에서 사찰이 지니는 지도력과 영향력 등을 생각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찰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일정한 역할수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병준교수는 불교의 이러한 현실참여가 뚜렷한 원칙과 함께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것으로 선거과정에서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헌실참여는 청년회나 신도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잘 잘못을 지적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하고 사찰은 이러한 활동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본사주지 연수회에는 이밖에도 리영희교수(한양대)가 '한반도의 비핵화 · 군축 · 그리고 통일' 김종서박사(서울대)가 '지도자로서의 자기변화' 박윤흔 교수(경희대)가 '불교와 환경'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한국사회의 종교현황과 불교의 과제' 삼성멀티미디어 추진실에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불교계의 대비와 활용' 등에 대한 설명회와 조계종의 현황에 관한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조계종은 본사주지연수회에 이어 3월부터 금년말까지 각 교구 말사 주지스님들의 연수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하루빨리 … 조계종 총무원은 송광사 성보를 되찾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신고전화 : (02) 735-5864〉

'선본사 조사특위' 구성

조계종 임시종회, 선관·법규위도

관리권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선본사(일명 갓바위)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16일 열린 제115회 임시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는 선본사의 수익실태 전반을 실사하는 조사특위 구성과 함께 종립 청화 영담 광복 성문 효림 현진 육문 진성 석호스님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의 초점이 됐던 선본사의 은해사 말사로의 환원 제안은 무산돼 직영사찰로서 계속 존속하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규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에 탄성스님등 9명, 법규위원에 법장스님등 9명을 각각 선출했다. 현호스님의 사직으로 자리가빈 초심호계위원에 월서스님이 보선됐고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는 자선스님등 6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종회 안건으로 상정된 △통일특위구성의 건 △불교방송 진흥원 불교 TV의 건은 차기종회로 이월됐다.

'지자제와 불교' 포럼

3월18일 대불청 주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오는 3월18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대불청의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갖는 이날 포럼에서는 6월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민자당의 지자제 정책과 방향' '민주당의 지자제 정책의 방향' '지자제와 불교의 범위와 전망' '대불청의 95년도 정책과 방향' 등을 토론한다.

목어

조계종의 새 봄

조계종은 지나치게 개방적이다.

일반 가정살림에서도 밖으로 드러내 보일 것이 있고, 집안에서 소리없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거늘 조계종은 너무 가림이 없어 보인다. '가린다' 고 해서 속임수를 쓰거나 누굴 속이자는 것이 아니다. 노출돼 부끄러울 문제가 생기거나 의견을 조율할 안건이 있으면 성직자들의 집합체답게 조용히 해결하자는 뜻이다.

최근의 선본사(갓바위 부처님) 문제만 해도 그렇다. 관리권을 놓고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종회의 안건으로 채택됐고, 일간지에까지 대서특필됐다.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조계종은 그 반응을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

차마 입에 올리기 거북하지만 '잿밥' 얘기가 안나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이 이쯤되면 종회에서 잘 마무리해도 조계종은 또한번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 셈이다.

아무리 수행인이 모인 승가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다 보면 '소리' 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해결의 답, 즉 부처님의 8만4천 법문을 우리는 늘 가까이 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바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려는 불제자들이다. 문제가 생기면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얼른 답을 찾아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야만 '갓바위 부처님' 가피의 품이 더 넓어지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란 말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봄이다. 계절의 봄, 세기의 봄을 준비하는 조계종은 새 물꼬를 트느라 바쁘다. 여기서 종도들은 그간 바람잘날 없이 이어져온 크고작은 '불협화음' 의 원인을 숙고하자. 그리고 참회할 시간을 갖자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실바 교수 세계문화유산 평가전문인

석굴암석굴(국보 제24호)과 해인사 대장경판 및 판고(국보 제32호, 52호), 종묘(사적 제125호)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파견 방한한 세계적 건축가 니말 데 실바(스리랑카 모라투와대학 교수 겸 ICOMOS 국제문화재유적지연구협의회 스리랑카 사무총장)교수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조사를 마치고 "한국이 신청한 3건의 문화재는 모두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드러났다. 실바교수는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WHC(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ICOMOS의 전문가로 한국에 파견돼 7일 석굴암, 8일 해인사 팔만대장경판및 판고, 10일 종묘를 현지 조사했다.

현지 조사를 마친 실바 교수는 지난 11일 문화재관리국 주요인사등이 참가한 자리에서 강평을 갖고 출국, WHC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신청한 3건의 문화재는 WHC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공식일정을 마친 실바교수를 지난 11일 오후 필동 '한국의 집' 에서 만나 현지조사 소감을 들었다.

—한국의 문화재를 둘러 본 소감은.

▲오기 전에 가졌던 막연한 생각과 전혀 다른 문화재를 접하고 경이로왔다. 제출된 보고서만 읽고 생각했던 이미지에 비해 너무나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 자체의 미적 가치에 압도당했다.

"석굴암등 미적가치 세계최고"

—3건의 문화재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모두가 인상적이어서 특별히 한 건만 이야기 할 수가 없다. 팔만대장경판의 완벽한 보존과 판고의 과학적인 설계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석굴암의 숭고한 신앙성과 예술적 아름다움도 나를 거듭거듭 놀라게 했다. 돔형의 축조기법은 제작 당시의 세계 건축 기술을 감안할때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술이 8세기의 한국에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본존불상 옆의 화감암에 새겨진 조각들은 마치 종이에 그려넣은 그림처럼 훌륭하다. 종묘의 경우도 건축기법과 음악 그리고 제사의식이 함께 온전히 보존되고 있어 이 역시 세계 유일의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조사를 하며 느낀 것은 한국이 신청한 3건중 대장경 석굴암 관련문화재는 해인사, 불국사를 묶어서 통채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신청해도 무방했을 것이란 점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토록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교육을 학교교과 과정으로 넣어야 할 것같다. 또 문화재 보존은 새롭게 가꿔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유지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한 최대한의 재정지원과 인력 투입도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임연태 기자〉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열린마당

통일준비

마음의 분단부터 헐자

사 설

조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종교적 평화교류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김덕룡일부총리는 2월10일 관훈클럽토론회 초청연사로 참석하여 "종교·학술·문화·체육분야인사의 방북문제는 실현가능성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남북평화공존 교류체제는 1991년 서울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북평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못했다.

다만 지난해 12월13일 쌍룡그룹 이주범부회장 등 12명이 시멘트공장건설을 위하여 방북한 이래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방북하여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한편 2월7일엔 국제민간자선단체인 '국제선명회'를 통하여 불교 등 한국 6대 종교단체가 북한에 양곡보내기사업 추진을 위해 모였고, 북한도 그 보답으로 샘물과 목재들을 남한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한다. 또한 북한은 4월말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 5천명 이내의 남한 사람들을 선별 초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4월 평양축전에 형식적으로는 '평양축전 참가를 원하는 모든 남한사람'을 초청대상으로 하고, 사실상으로는 남쪽에서 방북신청을 할 수 있는 초청장이나 방북비자에 갈음할 여행자카드발급과정을 통해 전환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통일원은 종교문화인의 방북카드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문화인의 남북교류를 앞두고 불교계는 지난날의 통일운동을 돌이켜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50년간의 남북분단 시대동안 남북불자들이 두드러지게 한 일은 1991년 11월 미국 LA에서 남북불교지도자 70명이 모여 통일법회를 한 것이며, 현재 한국불교계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남북교류추진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통일 염원 남북불교순례단 등 몇몇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 기초위에서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마음의 분단이 국토의 분단을 가져왔으므로 마음의 분단선을 허물고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화쟁 중도사상에 터잡아 남북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제사상이 부처님의 중도(中道)사상을 중심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하여 융합되도록 해야 남북해외 8천만 민족의 화합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북쪽의 불교는 질·량(質·量) 양면에 있어 남쪽에 비해 대단히 취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체제우월성을 과시하여 북으로 하여금 흡수통일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며 정치경제적 이해를 떠나야한다.

그런 후에 보살도 실천의 차원에서 동포애를 회복하여 인본적 사랑의 나눔이 되도록 해야한다.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만이 분단과 불신을 딛고 서로가 신뢰를 쌓아 통일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셋째 우리 불자들은 모두 통일보살로서 남북상호방문 불교문화행사공동개최, 불경보내기운동, 불교학술상호답사, 남북명산대찰순례 합토제, 유등재등을 통하여 민주통일정토구현에 앞장서되, 남북 통일운동관계 불자들은 서로 통일운동협의기구를 만들어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하여 새역사창조에 나서야 하겠다.

전문가 의견



정천구

전담기구 마련, 공동사업 펴도록
다양한 보시운동 통일의 지름길

종교인을 비롯 기업인, 학자, 문화예술인 등의 방북이 보다 폭넓게 허용되면 불교계의 통일운동과 대북포교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계는 이제까지 펼쳐왔던 통일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적극적인 통일운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통일운동의 목표를 확고히 정립하는 일이다. 이땅에 사는 불자들의 당면 과제는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일된 불국정토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동포가 모두 부처님 정법에 의해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남북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헐어내 이 땅에 통일된 불국정토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대북포교와 통일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각 종단내 북한포교 및 통일운동을 전담하는 공식기구를 마련하고, 이러한 기구들과 재가 불교단체들의 유사한 기구들을 망라한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교의 대상이며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관한 불교계 지체의 깊이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북불교단체간의 만남을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김일성유일사상 체제 속에 있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이런 만남을 불심을 연결하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민족의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 환경, 복지, 인권 등 민족적,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함께 부처님께 발원하고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불교계의 통일운동을 해외동포사회에 확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타종교에 비해 진출이 미미한 중국 연변, 길림지역의 교포사회에 불서를 보급하는 등 포교의 거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동포에게 불서보내기, 자비의 쌀보내기 등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시운동의 전개를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 보시운동은 포교의 지름길이며, 분단의 본질인 남북사이의 마음의 장벽을 헐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천대 교수〉

일지로 본 불교통일운동

'남북통일을 하루 속히 원만하게 성취하도록 해주십시오' 전국 각 사찰에서는 조석예불 때 이렇게 간절한 민족통일 염원을 발원한다.

이런 모든 불교도들의 통일염원의지를 담고 진행했던 불교통일운동을 일지로 묶었다.

△88.7. 기대원 스님 최초로 북한방문. 그후 2차에 걸쳐 평양에 갔다.

△90. 2. 종단협과 통일염원 청동미륵대불 조성위원회는 법주사 미륵대불회향법회에 북한불자를 초청키 위해 법타스님 파견(법타스님 '중원에 서서' 책자 발간)

△90. 7. 종단협은 8월중 남북 불교대표자회담 개최 제의. 동시에 북한의 불교문화재 발굴·지원의사를 밝히고 세계불교도대회,한강연등제 등에 북한 불교도 초청 했으나 무응답.

△90. 9. 한국교수불자연합회,대한불교청년회 등 5개 불교단체는 '통일염원 북한불교순례단 추진위원회'의 방북을 위해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신청서 제출.

△91. 4. 한민족불교교류추진 미주불교협의회 도안·법타스님은 북한을 방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과 남북한 불교교류에 관해 논의(법타스님, 북한의 절과 불교에 관한 '북한 불교 답사기' 발간)

△91.10. 남북한 및 해외동포 불교지도자 50여명이 미국 L.A.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만나 '조국통일기원 불교도합동법회' 개최(법타스님, '남북불교 교류와 전망' 논문 기고)

△92. 2.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평불협)창립.

△92.7. 통불협은 108인 북한방문단을 결성, 방북을 추진했으나 정부 허가 불허로 무산.

△92. 9. 종단협은 10월에 개최되는 동북아 불교지도자 평화회의에 북한대표를 초청키로 하고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신청 허가 받음(조불련의 불참으로 남북 불교교류는 무산됨)

△92. 9. 평불협 미주본부 창립. 미국 L.A. 달마사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재미교포불자의 통일사업 참여 및 북한바로알기운동을 전개키로 함.

△93.10. 실천승가회는 '제1회 민족통일을 위한 불자 한마당' 개최.

△94. 2.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출간한 '팔만대장경 해제' 전 15권 4천3백질 도입 결정.

91년 LA서 최초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

현대만평

박구원



하나의 불심으로 나라를 …

시 론

가정윤리 회복의 길

한국의 가정은 더이상 가족 서로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는 곳임을 포기한 것일까. 우리 국민들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것'을 싫어하는 이른바 3D 현상이 가족 구성원에게도 전염된 것일까. 혼자 살던 노인이 죽은 지 한참만에 이웃에 의해 발견되는 정도는 신문뉴스로도 새삼스러운 사건이 되지 못한다. 지난 한달 동안에도 서울 시내에서 두명의 노인이 혼자 살다 아무도 몰래 죽음을 맞이했다. 시신도 보통 일주일쯤 지나서 발견된다. 자녀들은 아마 힘드는 효도를 봉건시대의 낡은 가치관쯤으로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른다. 노인을 봉양한다는 것은 3D업종만큼이나 힘드는 일인 것이다.

서울 가정법원에는 친자식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내는 노인 역시 늘고 있다. 부모봉양을 3D업종쯤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이쯤되면 노인의 의식도 상당히 발전했다고나 할까. 그들도 산업화되는 사회에서 각종 정보를 접하며 살아온 '이 시대인'임이 분명하다.



김징자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들인들 사회변화에 물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요즘 출가한 젊은 세대는 부모와 분가하기보다 동거쪽을 선호하는데 그것을 대가족으로의 회귀조짐으로 반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결혼 후 살림이며 육아 등 이른바 가정안에서의 3D작업인 귀찮은 일을 시부모에게 맡기려는 또다른 이기심이라 분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 어느 쪽이든 가사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쪽이면 함께 사는 것이 젊은부부에게는 여러면에서 유리하다. 그 유리함을 택해 동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요즘의 부모세대가 그것을 달갑게 받아줄리 없다. 그래서 손자녀 돌보기를 기피하는 요즘 노인 세대를 비관하는 소리도 들린다. '노인들이 인정이 없고 일하기 싫어하며 이기적'이란 이야기다. 이제 가족은 너나 할것 없이 이기주의자가 되어 핵가족마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생긴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

얼마전 보건복지부 발표에 다르면 94년 한햇동안 발생한 기아와 미아 등 요보호 아동수는 6천2백78명으로 93년도 4천4백51명에 비해 41%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책임이 그만큼 희박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94년 한해동안 하루 평균 8.7명의 기아가 발생했고 이중 미혼모가 버린 아동이 하루 4.9명이며 가출아 역시 하루 평균 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배나 증가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와 '가정을 버리는' 아동이 함께 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가정은 어린이에게도 그다지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향을 드러내 보여준다. 어린이 역시 가난하고 힘겨운 가정이라면 미련없이 버린다는 것이다.

가정은 인간 삶의 최소단위 공동체이며 기초적인 핵이다. 인간 삶을 지탱시켜 주는 힘인 사랑도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장 이상적인 민주사회건설의 첫 단계도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이 올바로 서야 사회가 올바르게 되며 국가나 세계 역시 올바른 길로 가게된다. 노인문제 아동 청소년문제 등 모든 사회문제가 사랑 없는 가정과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모든 가정이 튼튼한 토대위에 있다면 지금 열거된 문제들은 그다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사랑해 보았나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족 내자식만을 위한다는 가족이기주의를 심각하게 비판해 왔다. 내가족 내 자식만을 위해 어떤 수모도 당하고 불염치함도 행하게 되는 그런 가장을 경계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가족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한다면 그런 가족이기주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핵가족마저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미치게 된다.

가정의 붕괴는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연합 12개국 중 평균 4가구에 한집이 독신 가정이며 미국 역시 이 수치와 비슷하다. 여기에 세쌍 중 한쌍이 이혼한다는 구미 여러나라의 최근 통계도 가정의 붕괴를 말해준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문제연구소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 발표한 '인구변화'를 보면 '94년 프랑스에선 25만4천쌍이 결혼했고 이는 한해의 이혼건수보다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결혼보다 이혼이 더 많은 시대를 유럽은 맞이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마저 쾌락주의 때문에 분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한국에도 해마다 독신가정이 늘고 이혼건수는 높아만 간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 그 수치는 미미하다 해도 미래 가정의 어떤 조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같은 풍토를 부추기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학자들은 첫째 요인으로 산업사회로의 이행에서 생기는 극단의 개인주의를 든다. 사람의 손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문명의 이기들도 가족을 분리시키는데 한몫을 한다. 사람보다 기계가 더 편리하게 개인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 부모자식간 갈등을 적나라하게 다루는 각종 매체들도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들간을 이어주는 사랑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神을 사랑한다는 어떤 사람이 수행자 라마누자를 찾아가서 신을 사랑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그대는 누구를 사랑해 본적이 있는가",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어서 이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신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다. 신에 이르는 길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 몫이다.

전원문화사
121-110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8-6
전화 704-1626,1628 팩스 718-2837

절에 가서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

스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부처님께 예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각 건물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많은 부처님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도량의 권속들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벽화나 탱화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百年貪物一朝塵



三日修心千載寶

늘 공해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와 여유를
찾아 산으로 떠나보십시오.
울창한 숲과 오묘한 바위, 우아한 계곡과
산능선, 그윽한 풀과 나무 냄새,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을 찾는 사람은 꼭 절을 찾게 됩니다.
절은 산속에서도 가장 경치 좋고 터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이 곧 절이고 절이
바로 산입니다. 결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 들어오는 여러 건물과 불상,
탑과 벽화들을 무심코 지나치게 됩니다.
또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의 참모습과 의미를
살피지 못하고 그냥 떠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놓쳐 버렸던 불은(佛恩)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컬러판 / 376면 / 값 15,000원

전국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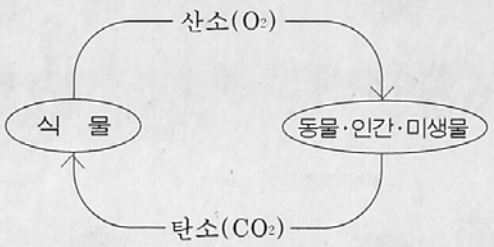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⑤

땅

미생물·동식물 인간과 공생관계 유지

먹이연쇄·호흡작용 통해 영양소 서로 교환



한줌의 흙, 1그램의 미시적 땅의 세계는 정태적인 세계가 아니라 거시적 땅의 세계로서의 우리 자신의 생활공간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역동적인 변화의 세계이다. 이러한 땅의 세계는 열린 체계로서의 비평형계로서 다른 땅, 물, 불, 바람, 생명의 세계를 내부적으로 수반하며 다층적으로 연쇄작용하고 외부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끝없이 변화해 간다. 이것이 바로 미시계와 거시계의 공진화현상이며, 화엄철학의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의 세계이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국소적으로 닫혀진 미시계(一微塵)와 개방적인 거시계(含十方)사이의 에너지 교환과 물질교환이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 했지만 미시적 1그램의 흙덩이 속에는 금강경에나 나옴직한 10억 미생물의 우주가 전개되고 있다. 그 속에는 미생물들이 안식하는 흙알갱이의 집들이 있고, 물을 저장하고 양식을 보관하는 통과광이 있고, 생활과정에서 생겨나는 가스는 흙떼알산 사이의 공간으로 방출되고, 그들사이로 흐르는 미세한 강과 호수사이를 오물의 배출고로 삼는다. 또한 이러한 토양에 녹색의 엽록소를 가진 식물의 잔뿌리들이 내리면, 곰팡이와 세균들은 거시적 세계의 지상의 식물의 벡리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서 제공한다. 곰팡이와 세균들은 식물의 잔뿌리를 둘러싸고 각종 미네랄,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식물의 뿌리는 그들에서 특정한 신진대사물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해서 곰팡이, 세균들과 식물의 잔뿌리는 서로 상호협동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 식물은 생활공동체로 부터 지상에서 광합성등의 생화학적활동을 위한 각종 미네랄과 수분, 영양소를 공급받아 지상의 거시세계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땅위의 식물에 지상의 모든 동물과 인간이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한다. 식물과 동물및 인간은 마치 토양속에서 식물의 잔뿌리와 세균, 곰팡이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밀접한 상호의존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녹색의 엽록소를 가진 식물들은 태양(불)에서 부터 오고 빛에너르기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물(H_2O)과 공기중의 탄소(CO_2)를 햇빛의 힘으로 당분과 산소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데, 이 광합성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이룬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 광합성이 원활히 일어나려면 미시적 토양의 세계에서 땅, 물, 불, 바람과 십억미생물균의 도움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식물의 유기체적 생산활동에 동물은 의존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동물이건 식물이건 생명이 다했을 때에는 땅과 대기중의 세균, 곰팡이들에 의해 먹이가 되고 분해되어 환원되어 땅, 물, 불, 바람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들은 또한 살아 있을 때에는 호흡작용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해서 긴밀한 유대속에 살아간다. 우리 인간도 역시 식물이 광합성으로 방출하는 산소가 없다면 지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며, 우리는 호흡을 통해 탄산가스를 식물의 광합성이 공급한다.

이와같이 거시적 땅의 세계는 미시적인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의 상호공존, 먹이연쇄, 호흡작용을 통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는 환경구조인 것이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불서 선물

2월과 3월에 걸쳐 졸업·입학의 기쁨을 안는 손자 손녀 3명이 있는 김경환거사(65)는 손자·손녀들에게 줄 선물을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불교서적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큰 손자에게는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과 「인도기행」,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손녀에게는 역사책 읽기를 즐겨하는 성향을 고려해 「역사로 읽는 원효」와 「삼국유사」,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외손주에게는 만화 「부처님이 좋아요」와 「불타 석가모니」를 주려고 미리 사두었다. 비싼 선물을 원하는 손자·손녀들이 다소 서운해 할지도 모르나 불교서적을 준비한 할아버지의 뜻을 간곡히 설명하며 줄 생각이다. 김거사는 지난 설날에도 세뱃돈대신 도서상품권을 세배온 손자·손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며칠전 회갑을 맞은 이화순보살(61)은 잔치를 여는 대신 「법화경」의 법보시를 절의 가까운 신도들과 친지 친척들에게 베풀었다. 지난해 시내 H사에서 전통혼례로 결혼식을 거행한 민경수·김희영부부도 축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지장경」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우리 불교계에는 옛부터 회갑 결혼 생일 아기돌 49재등 특별한 날을 기리는 선물로써 경전등의 법보시를 많이 행해왔다.

책은 한번 보고 버리는 1회용품이 아니다. 대를 이어, 또는 여러 사람이 돌려 볼 수 있다. 책선물은 누구에게도 좋지만 특히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받는 책선물은 그의 인생 진로나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은 비용으로 의미깊은 선물에 있어 「책」이상 가는 것이 없다 하겠다.

부담적고 큰 가르침 담겨

입학·졸업철 청소년가치관 형성에 큰 몫

요즘 졸업·입학철을 맞아 선물로 컴퓨터 패션속옷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심지어는 해외여행 자동차를 사주는 통큰(?) 부모들도 있다는 보도이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이 화려하고 비싸기만한 선물보다는 한권의 불서 또는 불교신문·잡지를 1년동안 볼 수 있는 구독권 선물도 뜻 깊을 듯 싶다.

선물이란 주는 이의 따뜻하고 정성어린 마음이 담기는 것이 최상이다. 줄때 부담없고 받아서 의미깊은 선물로 적은 금액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뿍 안겨줄 수 있는 불서 선물이야말로 최상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신행수첩

근세불교 산실을 찾아서

원광사, 덕숭산 순례

삼라만상이 불국토 아닌곳은 없지만 덕숭산은 근세 한국선풍을 크게 떨친 경허, 만공선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 불자들에게 신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성지이기도 하다.

매달 정기적으로 불법이 살아 숨쉬는 사찰을 순례하며 신심을 함양하는 호국 원광사(주지 한상길)는 오는 24일 수선도량으로 유명한 덕숭산 수덕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성지순례는 단층맛배 형식으로 치밀하게 건립된 국보 제49호인 대웅전 참배를 시작으로 청연당, 백연당 및 만공선사의 영정이 모셔진 진영각을 둘러 보게 된다.

(02)796-0203

온화한 연꽃의 미소 닮자

불교전통 꽃꽂이 강습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가 날고 연못에는 칠보연꽃이 피며 나무에는 만다라꽃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보배로운 부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자.



◇수덕사에서 1020계단으로 이어지는 덕숭산 정상의 정혜사. 한국선풍을 크게 떨친 경허, 만공선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신심·반야·대비등 보살4덕 배워요"

한국불교연구원 대승불교강좌

'위로는 무상보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이익케 하고 교화(下化衆生)'해, 모든 바라밀의 행을 닦아서 미래에 불타의 깨달음을 열고자 서원한 이들을 일러 보살(菩薩)이라 한다.

이러한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발원한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회장 김병렬)는 20~25일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강남구 개포3동 연구원 법당에서 '보살의 사덕(四德)'이란 주제로 제101회 대승불교강좌를 마련한다.

보살의 4덕이란 신심(信心)과 반야(般若), 삼매(三昧)와 대비(大悲)라는 네가지 덕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자들이 꼭 갖춰야 할 네가지 덕목을 말한다.

평소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어려웠던 불자들은 이 불교기초강좌를 통해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02)575-6167~8

그나라에서는 부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환희심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은 마치 연꽃의 미소처럼 온화하고 너그러울 것이다.

불교전통꽃꽂이를 통해 연꽃의 미소를 배우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보자.

불교문화센터에서는 불교전통꽃꽂이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연화꽃꽂이회 보명스님의 강의로 3월8일부터 5월까지 계속될 이번 강좌는 우리마음의 불성이 본래 아름다움을 꽃꽂이를 통해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것이다.

(02)703-0108

용기 북돋는 보살행

50명 할머니 장학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독한 신심으로 면학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보시행을 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선행의 생활화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부산 관음선행장학회(회장 정재선)는 오는 23일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학인스님 8명, 불우청소년 4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은 회원 할머니 50여명이 한두푼씩을 모아 저축한 이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다.

관음선행장학회 회원들의 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운겨울 불우이웃, 소년소녀 가장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구수한 옛이야기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도 열심이다.

(051)464-2020

마음여는 감로법문

광명선원 월운스님초청

은은한 목탁소리와 함께 울려오는 아침예불의 청아함은 심신의 찌든때를 맑게 해주는 청정음이다.

방배동 광명선원(주지 초격스님)에서는 오는 23일 오전10시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을 초청하여 옛 산사의 맑은 향취를 만끽하는 감로의 법문을 청해듣는다.

'향수해례와 사성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관음재일을 맞아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명례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산사에서 여명이 밝아오기 전 노스님과 동자스님이 법당에 들어가 향을 곱게 피우고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새벽예불의 목탁소리. 이를 일러 '향수해례와 사성례'라 하는데, 정성이 함께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예불의식이다.

(02)584-1108

책방 여시아문 737-0695

호흡법 인문 교리등 공부

선학원 시민선방 개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정신적 갈증에 허덕이는 현대인들.

재단법인 선학원 중앙선원(원장 법진스님)은 직장인 및 일반 재가불자를 위하여 3월1일부터 4월말까지 사철 시민선방을 개설한다.

정적이 흐르는 선방에서의 참선실수, 초발심자를 위한 예경법등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강의 등이 자신을 수양하고 다듬기 위해 모인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직장인도 좋고 주부들도 좋다. 한 번 호흡에 하나의 망념이 떨쳐지고 한 생각에 일체를 얻어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때 삶의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게된다. (02)732-3327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 접수현황

▲부산 한마음선원	2백7십만4천원
▲옥천사	5십만원
▲청량사	3십만원
▲동대문 연화사	6십3만원
▲고운사	3백9십8만원
▲인천 사암연합회	1백만원
▲진관사	2백5십만원

〈2월8일~15일〉

*성금모금계좌번호

농협 053-01-22778(불교중앙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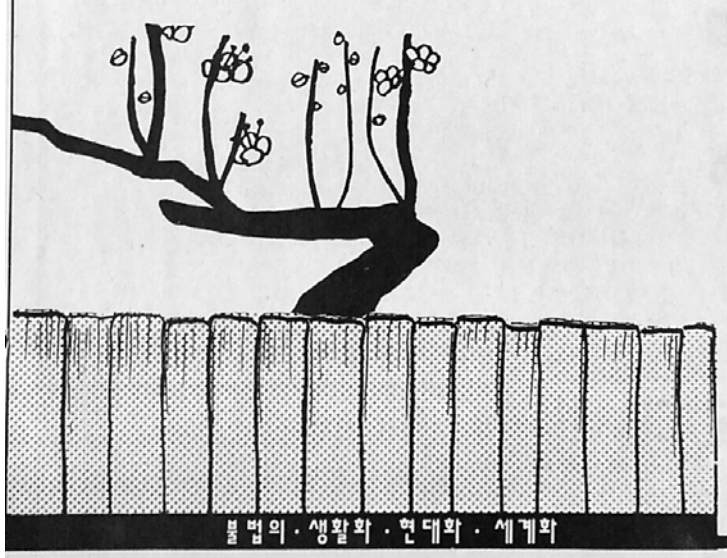
국민은행 023-01-0533-563(불교중앙교원)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 불교 ⑰

협찬 : (주)삼천리 도시가스

내 뜰 앞마당에 피어있는 매화



'옥에 흙이 묻어 길 가에 버렸드니 오는 이 가는 이 흙으로 아는고야'

옛 시조의 한 구절이다.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잠든 친구의 옷섶에 보물을 감춰 놓고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제 옷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는 친구는 거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엔 보배라면 온갖 노력 끝에, 산전 수전 다 겪어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산 너머 매화 핀 곳을 찾아다니다 지쳐 돌아와보니 뜰 앞에 피어 있었다는 격으로 진짜 보배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보배가 내 손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법화경 궁자(窮子)의 비유에서처럼 보화 그득한 창고 열쇠를 손에 쥐어 주려는 제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들의 경우와 같이 우리는 무한량의 보배 창고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작 세간의 사소한 이익을 앞에 놓고 울고 웃는다.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모든 이익을 다 말아버릴 단 하나의 이익, 모든 욕구를 다 태워버릴 단 하나의 욕구, 그러한 이익·욕구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흙을 씻어내고 옷섶을 제쳐서 보화를 찾고, 아버지가 쥐어 주는 열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한량의 보화 그득한 창고를 열어젖혀야 할 것이다.

창고 열쇠는 불법 속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거기에 열쇠가 있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협찬
(주)三千里 도시가스
광명 제 4지역 관리소
대아공무(주) 광명지점
도시가스 설비 일체
대표 명을식
광명시 하안동 중심 상업지역11-1
전화 : 809-6200-1,807-8441 / 팩스 : 808-2277

교차로

신년하례법회서 법문



월하스님(조계종 총정)은 지난 15일 구룡사와 서울 통도사 포교당이 함께 마련한 신년하례법회 및 양산 통도사 성지순례에서 설법을 했다.

금강불교대 졸업식 참석



김도용(천태종 총정)스님은 지난 18일 부산 삼광사에서 열린 금강불교대학 제6회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1백82명이 졸업했다.

고베지진 현장 위문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일본을 방문, 고베지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일·한불교교류회 인사들과 한중일 북경행사를 논의 했다.

한·태 국제불교대회 참가



보광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15일부터 열리는 제1차 한·태 국제불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5일 출국했다.

'사찰에서의 하룻밤' 개최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장성 백양사에서 '사찰에서의 하룻밤'을 개최하고 신도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영동불교 창간



부동스님(강릉 관음사 주지·영동불교발행인)은 지난 1일 월간신문〈영동불교〉를 창간했다.

'바른역사 … ' 운영위원에



혜봉스님(이천 지족암) 지난 15일 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된 '바른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와 문화생활' 특강



서정주씨(시인)는 지난 16일 인천 송도가천인력개발원에서 가천문화재단 주최 '제3회 가천문화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 「시와 문화생활」을 주제로 특강했다.

시집 '독도' 출간

고은(시인·소설가, 본지논설고문)선생이 근작시 71편을 묶은 시집 '독도'를 냈다. (창작과 비평사, 3천원). 4부로 나뉘어진 이 시집에서 고은선생은 고향이라는 회귀처에 대한 그리움과 우리 산하에 대한 애정 어린 목소리들을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4부에서는 '동해 연꽃' '전등사' '성철스님 각령으로부터' 등 불교적 눈길로 보는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문화의 전통 … ' 강연



김용운교수(한양대)는 지난 17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 주최하는 전통문화 애호인을 위한 공개강연회에 참석, '문화의 전통과 세계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불교방송 부산지사장에



류진수회장(부산불교신도회)은 지난 1일부로 불교부산방송 제1대 지사장에 임명됐다. 또 본부장에 박순곤 부산가구협회대표가 임명됐다.

한국불교교화원 총회 개최

한정섭법사(불교교화원 이사장)는 오는 26일 청량리 미주부페에서 대의원 및 포교사 법사회총회를 갖고 94년도 사업결산과 95년도 사업계획 및 현안문제를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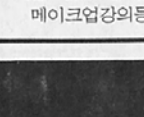
축하모임 마련



송재운교수(동대신문사동인회장)는 지난 20일 프라자 호텔 22층 덕수홀에서 황명 한국문인협회 제20대 이사장, 송석구 동국대학교 제13대 총장, 이창식 (주)MBC예술단 상무이사, 김택근 한국편집기자회 제33대 회장 선임 축하모임을 가졌다.

진여회 사무실 이전

박진성(조계종 진여회장)씨는 지난 3일 사무실을 종로구 수송동 원당빌딩 202호로 이전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자비의 손 법당에서 3개월 과정 원각경강의를 개설한다.



자료수집차 인도순례



정찬주씨(작가)는 전2권으로 집필중인 장편소설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16일 출국, 28일까지 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를 순례한다. 시인 윤제림씨와 작가 구효서씨가 동행한다.

자전적 에세이집 낸 서석재 총무처장관



'영원한 촌놈' 베스트셀러 1위

불자국회의원들의 신행모임인 국회정각회장과 조계사신도회장을 지낸 서석재 총무처장관이 최근 자전적에세이집 〈영원한 촌놈〉〈문학사상사〉을 펴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격려해준 분들께 마음의 보고서를 드리는 심정과 함께, 나처럼 불운한 정치인이 다시는 이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걸어온 이야기가 후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듯에서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힌 서장관의 이 책은 '동해사건'으로 정치활동이 중단된 시간을 이용해 써모은 글들을 묶은 것이다.

스스로 '촌놈'으로 자처하며 살아온 가난과 고학의 시절을 담담한 필치로 전해주는가 하면, '동해사건'에서는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연과 교묘하고 치밀한 정치공작의 전문, 그리고 법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뒷얘기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또 불교의 보다 밝은 내일의 도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곳곳에 드러내 불교인으로서의 자기 몫을 추스리고 있다.

한편 〈영원한 촌놈〉은 종로서적 2월 둘째주 베스트셀러 집계 1위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화스님 승가대수석졸업 최원섭씨 동국대 수석졸업



일화스님



최원섭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는 졸업식에 앞서 지난 13일 전체수석 및 각 단과대학 성적우수자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승가대 일화스님(사회복지학과, 평점 4.22), 동국대 최원섭(불교학과, 평점 4.45) 학생이 각각 전체수석을 차지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졸업생 가족 및 교직원,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갖는다.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병상심방원은 지방 군부대병원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사창리 군부대를 위문하는 회원들.

병상 심방원

전방지역의 군부대병원만을 찾아 보살행을 펼치는 불자들이 있다. 서울 상도동 기슭 보문사내에 자리한 병상심방원(원장 정진). 보문사의 사중스님과 신도모두가 병상심방원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문사는 인간방생의 근본도량으로 불리고 있다.

자기수행임을 강조, 약사사라는 포교당을 창건했다. 88년 마침내 상도동으로 이전 개원하면서 보문사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보문사는 재정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보문사에서 생기는 모든 공양물과 보시금은 물론 스님들도 경비를 절약해 병상심방원의 활동비로 활용한다.

전방지역 군부대병원에서의 병상심방원 인기는 높다.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찾고보니 군환자는 물론 사병과 장교들은 병상심방원의 방문을 기다리기 까지 한다. 특히 부대장들은 병상심방원 방문후에는 몇달간 부대내의 비품이 덜 부서진다며 자주 방문해 환자병사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군부대병원의 뜻을 살려 91년에는 국군 벽제병원에 자견사라는 법당을 창건, 환자병사들의 마음을 계속 다스리도록 했다.

병상심방원의 활동은 군부대병원 위문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군부대 이외의 환자방문, 간병인회운영, 해외포교지원사업, 수행승돕기, 불우학생학비지원, 출판등 문서포교등 인간방생에 관한 일이라면 어떤일이든 펼치고 있다. 〈엽〉

16년째 군병원에 자비손길

법당 자견사 창건 …간병인회운영·문서포교도

소외된 이웃 가운데 군부대 병원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외면된 곳이다. 병상심방원은 바로 이러한 특별지역만을 16년째 찾으며 부처님의 자비를 펼쳐온 것이다.

병상심방원은 79년 10월, 정진스님과 원공스님이 48일간 전국을 다니며 미타기도를 하면서 발원되었다. 물고기를 풀어주는 방생이 성행하던 당시 두스님은 전국의 저자거리에서 불교가 사회에 관심을 돌려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뜻있는 이들과 함께 천축사에 병상심방원 간판을 걸고 전방지역의 군부대 위문을 추진했다.

초창기 병상심방원은 사무실을 통해 활동을 전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은 보살행이 깨달음을 향한 부단한

'95 불교계 샛별 ★

불교전문 메이크업강사

김경숙 씨



독특한 분장 '살아있는 부처님' 재현

제등행렬·연극·TV등 활동폭 넓어 …'불교기술원' 설립 꿈

중생의 고통을 다 들어 주실것만 같은 커다란 귀, 검은 불모, 긴 눈썹등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처님의 모든 거룩한 모습과 대자대비 하심까지를 분장으로 나타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경숙강사.

그녀는 부처님의 이마에 생명을 불어넣는 황금빛 점을 그려넣으며 분장을 마무리 짓는다.

"신심나는 살아있는 분장으로 부처님이 나투시는 모습을 표현해 불자들이 환희심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난 92년부터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제등행렬의 총분장책임을 맡아 부처님과 마야부인, 불보살의 화신을 오늘에 재현해온 불교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93년 엑스포 행사때에도 엑스포 불교관 기념행사 불교가장행렬의 부처님과 십대제자 분장을 맡아 불교전통의 모습을 TV전파를 통해 세계에 알리기도 했으며 얼마전 성도절에는 수원 봉녕사 어린이 법회의 성도절 연극공연분장을 해주어 어린이들에게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도 했다.

부처님을 표현해내는 가운데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으랴 만은 그녀가 분장을 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독특한 부처님의 머리모양이다. 가장 쉽게 생각되지만 표현상의 어려움도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머리모양의 표현이라고 한다.

"불교행사에서 분장을 하다보니 부처님과 보살님등 불교관계 인물들을 보다 철저히 표현해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라는 그녀는 불화의 기초를 배우며 고증작업을 해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림공부뿐 아니라 마음공부도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녀는 사경과 사불을 자신의 가장 큰 공부로 삼아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

메이크업강의등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직업관리공단 미용기술 실기교사 자격까지 취득한 김경숙씨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불자들을 위한 '불교기술원'을 세워 재능있는 불자들을 육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그것만이 부처님께 회향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김경숙씨는 메이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일본에서 전문메이크업을 공부했으며 현재 서강대 언론대학원 방송아카데미 분장강사, 케이블 TV 케치원 분장·코디 담당, 조계사문화교실, 목동청소년회관등에서 불자주부들을 위한 메이크업을 강의하며 맹활약중이다. 〈이은자 기자〉

게시판

▲무료 법률상담=한국노인의 전화(회장 이성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에 법률문제가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02)722-8007

▲수강생모집=충북불교대학(학장 월탄)은 제1기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2년과정으로 25일까지 접수, 강의시간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0431)274-2159

▲아함경·금강경반 개설=청계사 영등포포교당은 아함경반·야간금강경반을 개설하며 3월15일 개강한다. (02)636-1713

▲자원봉사자 모집=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재원)재가복지센타에서는 재가가정봉사원을 모집중이다.

오는 3월8일부터 3주간 자원봉사와 관련한 교육수료 후 봉사활동을 하게된다. (02)985-0161~4

1995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출가희망자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 (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2027·2028, 조계사앞 삼보원:732-9904, 견지불교사:739-3032
부산영광도서: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광주 나라서적:222-282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전주 홍지서점:88-5311, 청주 일선문고:53-2360
울산 세종서점:74-1265, 포항 학창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2027·2028)

삼 화 불 교 대 학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⑮

포교

만해스님의 외침 다시 듣자

"아라한적 신앙형태 지양 중생이익·평화위해 전법"

만해는 한국불교를 개혁하려 하였다. 그가 불교유신론을 발표한 것은 행동없는 사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현실적인 교단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만해가 느꼈던 바 또한 개혁되어야 할 것을 논술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도 만해의 느낌이 생소한 것이 아니고 더욱 절실한 것으로 전신에 경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 과거의 흥분이 현실적인 병통으로 현현된 사실은, 역사의 몸부림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이러한 대목이 일치하는 것은 불교 교단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었던 치유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고질과 병폐를 만해가 종교사관으로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형적인 변화는 시대의 추이에 비추어 약간 변형되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의식 변화는 동시적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만해는 포교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는 왜 포교가 잘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 하였다. 종교세력의 미약은 종교존재의 무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종교 의무

경치 좋은데 위치한 명산의 대찰에서 찾아오는 신도만을 상대하면서 불교인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나약한 포교법이다. 시중으로 달려나와야 한다. 만해는 포교부진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한국불교가 유린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가르침이란 종교의 의무의 선(線)과 노력의 선이 병존해 가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외국종교로서 한국에 들어온 것들은 하나도 끊임없이 포교에 힘쓰지 않음이 없는 실정이니, 누구는 종교의 의무가 스스로 이렇지 않다고 하랴. 본래부터 그렇다고 할밖에 없다."

종교세력의 확충은 그 교리를 선교하는 열열한 의무감이 앞서야 한다. 자기만이 이해하고 자기만이 신앙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방식인 아라한적인 신앙형태로서는 종교가 확대되지 않는다. 진리를 밝혀 공부하면서 무지를 제도한다는 사명의식이 앞서야 한다.

부처님이 전도의 선언에서 말씀하였듯이 많은 중생을 위하여 이익, 안정, 평화가 증강될 때까지 포교를 시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만해는 전도에 대한 의견으로써 다음과 같이 주창하였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의 세력이 커진 것이고 두사람에게 전도하면 두사람만큼의 세력이 커진 것이 되어 포교가 성행하면 세력이 더욱 늘고 세력이 더욱 늘면 사람들이 따르기 쉬어지고, 사람이 따르기 쉬워지면 포교의 정도가 예기 이상으로 진척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포교로부터 세력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세력으로부터 포교가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하여 세월이 흐른다면 그 축적된 결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교가 동서양을 거의 휩쓴 것도 이 방식을 쓴 까닭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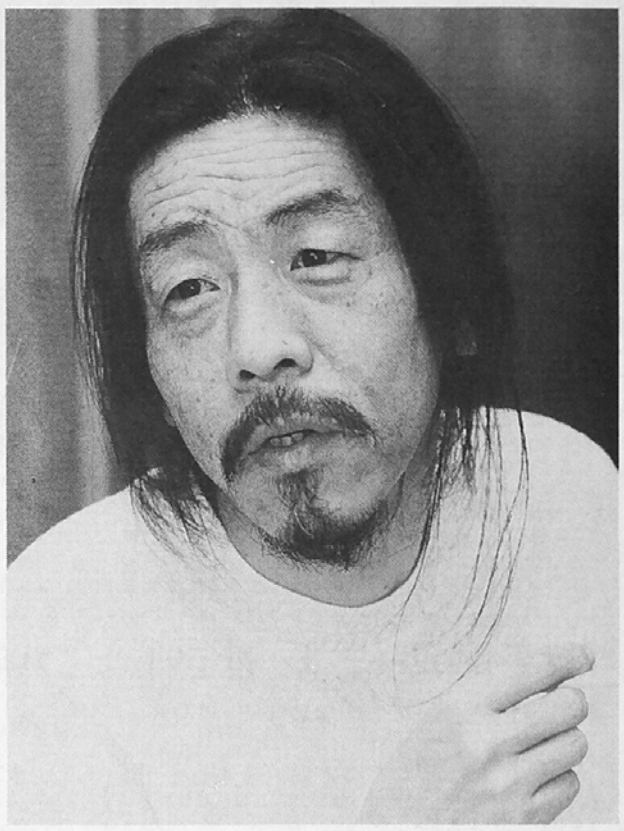
만해의 포교운동은 다수를 향한 외침이 아니다. 한사람이라도 착실하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처님이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항상 혼자서 떠나라고 권유하였던 것을 생각케 한다.

혼자서 떠나는 이유

한사람이 하여도 될 것을 두세사람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은 인력의 낭비임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소모하는 데도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한사람씩 더 많은 장소를 택하고 또한 넓은 공간에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전해지도록 노력하게 한 것이다. 포교의 긴요한 방법은 별로 갖추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항상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려는 성실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해 자신도 말하기를, "우리가 포교코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자격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자격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첫째는 열성, 둘째는 인내, 세째는 자애가 그것이니 그 셋중에서 하나라도 결여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포교인(布敎人)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포교하는 사람의 자격은 음성이 좋다거나 사설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 '열성' '인내' '자애'가 가슴속에 내재하여야 함을 만해는 강조한 것이다. 정법을 전달하려는 열성 전도가 곧 구도정신임을 자각하는 마음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침묵하는 포교, 단박자 악기를 두드리는 포교, 앉아있는 포교는 현대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소설·묵화는 내 주인찾는 여행"



산문밖의 선객

소설가 이외수

"번개를 잡아채는 순간에 한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붓으로 하여금 나를 쓰게해야 하는 겁니다"

〈꿈꾸는 식물〉〈칼〉〈장수 하늘소〉〈들개〉〈벽오금학도〉….

이외수라는 소설가를 아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의 긴 머리칼과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 그리고 전설처럼 떠도는 기행(奇行)이야기들을 떠 올린다. 그리고 그의 소설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를 '기상천외한 인물'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외수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단지 인간이고 소설가이고 몽부림치는 예술가일 뿐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는 인간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꿈꾸는 식물이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인간 세상을 거부하고 하늘로 날아가는 장수 하늘소란 생각을 갖게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이외수이기 때문이다.

둥글고 부드러운 것

"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내가 없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그 나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객지를 떠도는 여행자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의 '주인찾기 여행' 길에서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또 아내와 사랑도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여행이란 표현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직 하다. 그가 젊은 시절 누구보다 많이 떠돌아 다녔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젊은 시절의 좌절과 방황이 「둥글고 부드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는 긴머리의 소설가는 요즘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해 있다고 한다.

"봉익필(鳳翼筆)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붓은 대단한 것입니다. 닭털로 묶은 것인데 삐쭉삐쭉 제멋대로인 붓에 먹을 묻혀 종이까지 먹물을 흘리지 않고 가져 가는 정도까지만 두세달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년의 피토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제사 나는 봉익필로 먹을 흘리지 않고 그림을 그립니다"

소설가 이외수의 그림 그리는 방법도 역시 이외수다운 방법이다. 그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껄껄 웃어 재친다.

"번개를 잡아채는 순간에 한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시간도 멈춰버린 그런 시간에 그려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봉익필이 대단한 겁니다. 새벽에 홰를 치는 닭, 그 순간 닭은 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봉이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 입니다. 견주고 따져서 그린 것이 어디 그림이 되겠습니까"

파천일성(破天一聲). 하늘의 정적을 깨는 한 소리가 새벽 닭울음이라면 그의 그림은 인간의 고뇌를 깨부수는 깨달음의 순간적 희열을 담기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서양화를 공부했던 그가 먹의 세계에 빠져 든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라고 한다. 먹은 가는 순간부터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까지 온통 선정의 맛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외수씨는 "내가 붓을 움직여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붓으로 하여금 나를 쓰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없고 붓도 없는 곳에서 파천일성의 깨하는 순간에 학 한마리가 날아 오르고 메기 한 마리가 여유자적의 몸짓으로 물밑을 노니는 것이죠"라며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냐는 듯 건너다 본다.

사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먹이 그에게 무심(無心)의 이치를 가르쳤다면 그가 소설을 쓰는 원고지 한칸한칸은 그가 무심으로 앉아 있는 선방이다. 그 방에서 그는 인간의 삶을 엮어 낸다. 그가 엮어내는 삶은 바로 '깨달으면서 사는 삶'이다. 그는 거듭거듭 강조한다. 사람은 깨달아가며 살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들개」를 그리는 화가의 탈미적 발악도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벽오금학도」의 신비도 벗어 버린 듯한 이외수.

그는 인간의 삶이 아름다와 지는 길을 찾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세상을 낚시터로 삼고 그곳에서 진정한 낚시법을 깨우치는 한 노인과 청년의 이야기를 장편으로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깨달아가며 사는 삶

"그물이나 투망을 던지고 약을 뿌리고 밧데리를 쓰면서까지 물고기를 잡아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불행합니다. 마음으로 고기를 낚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아름다와 질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낚시법을 제시하고 싶다는 그는 "생노병사 희노애락은 인간의 그림자"라고 잘라 말한다. 부처님도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지만 결국 그 고통을 벗어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 인간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란 설명이다.

"나라는 주체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객체들, 그것이 곧 나의 것임을 절절히 깨닫고 그것을 무애자재하게 다스리는 것이 성불(成佛)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서 비롯되고 인간에서 마쳐지는 깨달아가는 삶의 의미를 그는 방황과 가난과 술과 여행 그리고 사랑을 통해 알게 됐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소설도 그림도 두뇌를 던져 버리고 오직 마음으로 쓰고 그리겠다고 말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것은 도 알라지 도 알라지 백가지 도를 알라지란 뜻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것은 알리라 알리라 알고 말리라 입니다. 또 동창이 밝았느냐는 도가 텄느냐하는 근엄한 물음이지요 이만하면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어떤 것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임연태 기자〉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2月 / 23, 28 3月 / 2, 7, 9, 14, 16, 21, 23, 28, 30

대만 5日 ₩595,000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 · 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2月/22 3月/1, 8, 15, 22, 29
스리랑카 6日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덤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2月/24 3月/3, 10, 17, 24, 31
미얀마 · 태국 8日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2月/24 3月/3, 10, 17, 24, 31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 · 최상의 서비스 · 최대의 기쁨-

방콕 · 파타야 5日 ₩68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2月/22, 25, 26 (₩715,000) 3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방콕 · 푸켓 5日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2月/23, 25, 26 3月/4, 11, 18, 25 (₩725,000)
동남아 3국 5日 ₩745,000	서울-싱가폴(4박)-바탐 · 조호바루-서울 2月/20, 22, 24, 25, 27 3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655,000)
방콕 · 푸켓 · 싱가폴 6日 ₩8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 2月/23, 28 3月/7, 14, 21, 28 (₩795,000)
하와이 5日 ₩679,000(일급) ₩765,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2月/22, 23, 25 3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미국 서부 버스 7日 ₩799,000	서울-LA(1박)-홀렉스텝(1박)-라스베가스(1박)-후레스노(1박)-샌프란시스코(1박)-기내(1박)-서울 2月/24, 27 3月/6, 13, 20, 27
유럽 5개국 10日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2月/23 3月/2, 9, 16, 23, 30
사이판 4日 ₩735,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2月/23, 24, 26 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괌 4日 ₩735,000	서울-괌(3박)-서울 2月/23, 26 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호주 · 뉴질랜드 8日 ₩1,745,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2月/23, 25, 26, 27, 28 3月/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5, 26, 28, 30 (₩1,545,00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 · 파타야	5日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日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전 일정 비디오 촬영 무료증정-	
대만(화련)	4日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日	- ₩670,000
	5日	- ₩785,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日	- ₩670,000
	5日	- ₩785,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日	- ₩790,000(일급) - ₩890,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日	- ₩1,109,000
	6日	- ₩1,14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T-Shirt,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불교 성지 순례 전문

21세기를 지향하는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 732-3200 (代)

"불교사원 임종간호 역할했다"

임종복지학 국내 첫 소개…김영희교수 일본서 논문발표



◇김영희교수

국내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임종복지학을 다룬 논문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됐다.

동남보건전문대 김영희교수가 지난 93년 일본 숙덕대(淑德大)대학원 사회복지학연구과에서 석사논문으로 취득한 「임종간호의 현황과 과제」란 이 논문은 불교의 임종간호(臨終看護:Terminal Care 또는 Hospice)의 역사와, 일본 불교계의 임종복지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불교계는 물론 기독교·천주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임종복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촉구하는 선행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수는 논문을 통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대단히 크다"며, "서구에서 발달한 임종간호는 그 대부분이 기독교 관계의 의료시설에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불교에서의 임종간호의 역사도 대단히 깊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임종간호를 "치유가능성이 없는, 말기상태(최후의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있는 임사환자(臨死患者)들에 대한 포괄적인 간호"라고 정의하면서, 산스크리트어 '비하라(Vihara)'가 임종간호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비하라'는 '사원'이란 의미와 동시에 '안식(安息)의 장(場)', '병원'이란 뜻을 지닌 것으로, 사원은 불법(佛法)을 전하는 동시에 병든 사람들이 모여 안식을 얻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는 병원이나 진료소 역할을 했다는 것.

이 사원에는 의사를 겸한 승의(僧醫)라던가 간병비구, 간병비구니가 활약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톨릭 수도원의 수녀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김교수는 "인도최고의 불교사원인 기원정사(祇園精舍)에 '무상원(無常院)'이 있어 중병인은 이곳으로 옮겨져 간병을 받았다"고 말하고, "무상원은 중병각(重病閣), 열반당(涅槃堂)등으로 불리면서 임종간호를 위한 중병간동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일본 불교계는 현재 터미날 케어, 일명 비하라운동이 불교재생운동의 하나로서 조용한 열풍을 몰아오고있다"며, "이것은 현재 '장례식 불교'라고 하는 일본불교를 반성하며 사회적 실천을 통한 불교복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지난 86년 초종파적으로 모인 60여명의 젊은 승려들이 경도불교청년회를 조직, 21세기에 일본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승려, 의료인, 재가불자와 함께 「불교에 있어서의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심포지움」을 연 것이 일본 비하라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하고, "한국불교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전자공학, 대리모 문제, 시험관 아기, 뇌사문제 등의 생명윤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소도의례, 신라불교 뿌리

송화섭 교수 주장

신라 불교수용의 신앙기반이 소도의례(蘇塗儀禮)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고대사연구회(회장 이문기)가 지난 14~15일 국립대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 「삼한의 사회와 문화」주제의 세미나에서 송화섭교수(원광대)가 「삼한시대 종교의례의 성격」을 통해 발표한 것.

송교수는 논문을 통해 "최치원은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를 통해 신라가 삼국이 정립하면서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신라 불교수용의 신앙기반이 소도의례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도가 불교신앙의 재래신앙적 기반이었음은 마한정통론이 강력하게 개진되던 조선후기 한치윤의 〈해동역사〉 석교조(釋敎條)에서 진수의 〈삼국지〉 소도내용을 빌어 "이것은 동방 불교의 조짐이다(此東方釋敎之兆也)"를 강조하면서 최치원의 지증대사비문을 인용하는데서 더욱 명료해진다는 것.

송교수는 "소도가 불교수용 이전까지 삼한의 종교를 대표하였으나 삼국의 건국주체들이 수용한 중국의 종묘제도가 제사체계로 정착, 대체되면서 민간신앙으로 전락해 갔다"고 분석했다.

송교수는 "지금까지 불교수용이전의 재래종교는 대체로 토착신앙이나 민속신앙이란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려고 했으나, 민간신앙이 아닌 '고대종교(古代宗敎)'라는 관점에서 보려는 시각과 인식이 새롭게 요청된다"고 말했다.

경을 보되 보지 말라는 뜻은?

문 공부하다가 의정이 생겨서 경전을 펼쳐들게 됩니다만 그때마다 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인천시 서구 가좌1동 · 양은경)

답 '하지말라'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누가 경을 보지말라고 했던가요. 경을 보되 보지말라, 말하자면 문자에 얽매여 표현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경전도 부처님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뜻을 참구하지 않고 문자를 연구하니까 보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의정이 난다면 경을 보고 답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남에게 물어서 알고자 하지도 말고, 사량분별심으로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도 말고 '의정이 일어난 그 자리에 답도 있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으며 거기에 맡기세요. 의정이 난다해서 답을 구하려고 억지로 애쓰고 끄달린다고 해서 시원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의정을 일으킨 것도 나이니 답도 거기서 나옵니다.

병도 전생의 업 탓입니까?

문 나의 전생을 알려면 현세의 나를 볼 것이며 내세의 나를 보려면 현세의 나를 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현직 교사인데 늘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어떤 업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요.

(강원 강릉시 내곡동 · 이일균)

답 일체 만물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며 돌아가는 까닭에 실은 병 붙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붙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것이 경전에도 나와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다', '이건 전생의 업보일 것이다'라는 생각부터 내려 놓으시지요. 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찰나찰나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근본 주처가 있는 줄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다 매고 '네가 만든 몸뚱이니 심부름 잘 하게끔 건강하게 끌고 가려므나'하고 맡겨 놓으세요.

이 몸과 정신, 이 마음내는 것과 법이 둘이 아니요 법신과 화신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일체가 한 군데서 나오니 나온 곳에다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빈 맷돌 돌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유마힐 거사께서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 소우주, 소혹성부터 돌아보고 발견해야 합니다. 내 몸 속에 수십억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생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중생과 부처를 둘로 본다면 제 마음과 몸 속의 중생들을 다르게 보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장기에 고장이 나면 전체가 병들어 쓰러집니다. 한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 전체가 흔들거리고, 한 지역이 결딴나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와 집니다.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한마음 주인공! 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육신, 나와 일체 만물, 중생과 부처가 둘 아닌 도리를 철두철미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이 아프다하면 그것도 한마음 주인공 도리에서 나온 것이니 나온 자리에 되 놓고 돌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믿음, 참으로 그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나온 자리에 되놓는 도리가 성립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도,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네 몸뚱이 네가 안아프게 해서 끌고 다녀라'하고 놓으세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체험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참선이기도 합니다.

인과를 피할 수 없는지요

문 불락인과(不落因果), 불매인과(不昧因果)에 대해 묻습니다. 법력이 높으신 도인들도 인과에 매이지 않을 뿐 인과를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업이 녹는 도리와는 모순이 아닐는지요.

(경기 군포시 산본1동 장동주)

답 이건 아니다, 저것은 맞는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색과 공이 둘이냐 둘아니냐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불매라고 했는가. 모든 것이 날날이 한발 떼고 놓고, 떼고 놓고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으니 다가온다, 아니온다, 불락이다, 불매다 고정되게 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생활 자체로 여여함이 불매인 것이지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면서 생사도 뛰어 넘는 것이 바로 불매이겠지요. 그래서 고정되게 불락이다 한마디 잘못 해가지고 여우의 몸을 쓰고 5백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이들은 5백년이 1초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우 몸으로 살든, 늑대 몸으로 살든, 구데기 몸으로 살든 선지식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했듯이 높고 낮음이 따로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매뚜기 발도 내 발이요 인간의 발들도 전부 내 발이요, 네 아픔 내 아픔, 네 몸 내 몸, 네 자리 내 자리가 모두 한 자리이기에 그 경지에서야 천상천하유아독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락이다, 불매다 라고 아퀴를 짓지 마세요. 그것마저 다 내려 놓으십시요.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그 가운데 불락이다, 불매다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해방후 불교사연표 '한눈에'

내용방대 고증정확…학술연구 귀중자료

승가대 김상영교수 기획

해방이후 94년까지 현대 불교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소장 홍선) 김상영교수(불교학과)의 기획으로 편집된 〈한국불교 현대사 일지〉가 22일 논집 〈승가〉 별책부록으로 발간된다.

광복이후 현대 불교사를 한국불교총람, 불교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모아 정리 편집한 330쪽 분량의 이 책자는 한국불교총람의 「한국불교사 연표」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와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정리되고 있어 불교사학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내에는 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중 「한국사 연표」가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불교사를 취급했으나 빠진 기록이 많았으며, 불교총람의 연표도 잘못된 기재와 중복기재, 출전근거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일지 발간을 기획, 편집을 진행시켜 온 김상영교수는 "단행본으로 나온 일본의 〈불교사 연표〉를 보고 이 자료집을 기획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을 경우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짜순으로 종단, 교육·포교, 학술·문화, 인물·기타 항목의 내용을 정확한 일자를 비교하며 쉽게 볼 수 있게끔 편집된 이 자료집은 '교육·포교' 항목에서 해외불교 기사까지 다루고 있으며, '학술·문화' 항목에서는 문화재, 예술, 학술세미나, 학술인물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60년 대한불교 창간 이전의 자료는 동아·조선일보의 자료가 빈약해 애를 먹었다"는 전영준연구원은 "이 자료집이 나올 경우 국내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지닌 현대불교사 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서 의견수렴 키로

설법교안 발행 세미나

(가칭) 설법교안 발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0일 녹수청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법교안의 편집방향에 대해 △참선수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행방편수용 △법회활성화 도모, 전국사찰의 월1회 통일적 법회 개최유도 등을 위해 '신행혁신 운동' '21세기 포교청사진 포교토론회'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설법교안」은 50~1백쪽으로, 발행부수는 3천부 예정이며 3월쯤 공청회를 열어 포교사, 편집담당자 총무원 부국장 스님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독문의:737-8881

"가우다빠따, 「中道說」근거 「不生說」확립"

문을식씨 박사논문서



◇문을식씨

불교의 '공(空) 사상'을 확립했던 용수의 중도설(中道說)과 인도 베단타학파의 논사 가우다빠다의 불생설(不生說)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을식씨는 동국대대학원 인도철학과 94년도 후반기 박사학위 논문 「가우다빠다의 불생설과 용수의 중도설: 중도설에 비추어 본 불생설」을 통해 "가우다빠다는 불교의 전문적 용어, 비유, 논법과 어구를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시킨 형태로 수용해 불생설을 천명함으로써 불이일원론(不二一元論)의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가우다빠다(640?~690?)가 인도 정통철학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우빠니샤드의 근본정신으로의 환원을 위해 내부학파들이 아닌 대승불교라는 외부사상을 적극 참고하게 됐다는 것이 문씨의 설명. 문씨는 "가우다빠다가 용수(龍樹, 150~250)의 중도설만이 아니라 세친의 유식설도 도입하여 현상세계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 즉 현상은 본체가 마야에 생겨난 거짓된 것이며 현상과 본체는 다르지 않다고 하는 불생(不生)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우다빠다는 용수 등 불교논사들의 은혜를 입어 브라흐마-수트라가 봉착한 일원론과 인중유과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인과율과 현상세계의 실재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현실생활에서의 모든 노력 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이것은 용수나 세친 등으로부터 차용한 사고의 틀을 자신의 주의(主義)에 무리하게 적용해 빚어진 결과라는 것.

경천사탑 보존작업 착수

국비5억투입, 균열부위등 보수

경복궁내 경천사지10층석탑(국보 제86호)의 보존처리작업이 본격화 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탑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비 5억원을 투입, 다음달부터 탑신을 해체하여 정밀 실측하고 석재표면의 시멘트제거, 오염물세척, 균열부위접착 등 복원작업과 함께 보존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훼손상태가 심한 탑골공원내 원각사지10층석탑(국보2호)에 대한 예산은 보존처리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이후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고속도 공사관계로

조탑리 고분군 훼손우려

대구~안동간 중앙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건설되는 인터체인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보물로 지정된 조탑리5층전탑과 고분군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문화재관리국 지도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조탑리일대 현장조사에서 현재 설계된 진입도로 노선은 탑은 물론 고분군 등 매장문화재 파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형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8월말 완공예정인 공기차질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당초 건설부가 설계한 인터체인지와 진입도로는 63년 보물 제57호로 지정된 조탑리5층전탑과 불과 14m 떨어져 있어 설계변경 없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차량진입 등으로 탑이 붕괴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대 원
불교대학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종교학	원전강독 I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756-7258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수요 인터뷰

"새 불자상 정립 결사운동 전개"

한국불교 재가회의 상임의장

서 돈 각 박사



지난 12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급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불교재가회의에서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서돈각박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불자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21세기를 앞두고 과연 불교는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가운데 새로운 불자상을 주창하며 탄생한 재가회의 상임의장 서돈각박사를 만났다.

-먼저 재가회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많은 다짐을 하셨을 텐데요.

▲물론 개개인의 수행과 공부가 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면 죽은 가르침이 됩니다. 또 철저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이 결여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그 사회를 이끌어갈 힘은 나올 수 없는 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온 중생을 구제할 영원한 종교임을 확신하기에 그 참모습을 펼쳐내는데 참회와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불자냐 아니냐 보다는 어떤 불자냐를 생각 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불자들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을텐데요.

▲재가회의는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당분간 회원의 자격심사를 -그동안 불교계에는 신행단체의 출발은 많았으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해서입니다.

-의장님의 개인적인 신행활동이 무척 모범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원과 계획은.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때부터 매일아침 108배를 했고, 근래에는 건강이 따르지 않아 일요일에만 하고 있지요. 더불어 대사회활동에 참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이타하는 새불자로 거듭나고자 원을 세웠으니 더불어 원만성취 되기를 바랍니다.

〈이준엽기자〉

약 력

- 1920년 11월3일 대전 生
- 1946년 경성제국대 법학과(법학사)
- 동국대총장, 경북대총장, 학술원 회장 역임
- 현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불교방송이사, 무애문화재단 이사장
- 저서로 〈개정 상법요론〉 〈제3전정 상법강의〉등 다수

도덕·환경·통일등 사회문제 적극 대처

▲재가회의의 창립은 한국불교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입니다. 이날 전국에서 그동안 불교와 사회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살아온 지도급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불교의 종교적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오던 불교지도자들간의 만남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저부터 새 불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제모습을 찾기위해서는 불자가 달라져야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새 불자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 가치 바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삼보공경의 자세, 재가불자의 계율이나 덕목, 생활가례의 확립등 참불자로 살아가는데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재가회의는 창립과 함께 주제토론등의 첫 활동을 가졌습니다. 각분야별로 전문인들이 모여 진지한 토의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져 미래불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불교가 신뢰받는 종교로서 모든 이들의 귀의처가 되도록 교단, 환경, 복지등 10개분과로 나뉘어 토의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분과별로 실천방안을 마련해 운동차원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재가회의는 결사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결사운동에 위 아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원의 자격강화란 결사운동의 일원으로 참여의 여부를 정확히 묻는 것입니다. 당분간 35세이상 3백인이내로 회원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들이 주체가 되도록하기 강화해 인원을 3백여명으로 한정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가입비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엄격히 시행할 것입니다. 회원개개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때 재가회의도 원활하게 흘러 갈 것입니다.

-회원의 자격 강화는 불자들간의 이질감과 머리만 있고 행동주체가 없는 신행단체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가회의 분과별 주제토론 (요지)

재가회의는 지난 12일 첫 분과별 주제토론을 갖고 일차적으로 펼쳐가야할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국제 평화분과**(위원장 박동기)=자비보시·오계실천운동 전개, 한국불교세계화와 불기 년도 국제기준으로 변경.

△**종교 교단**(위원장 신준식)=사부대중위상·역할 재정립, 불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각 종교간 갈등해소와 정부 및 사회에 나타나는 종교정책 시정.

△**환경 윤리**(위원장 신대윤)=불교사상·윤리관 통한 환경정책수립, 환경교육에 불교관 반영, 캠페인과 윤리회복 운동전개.

△**정치 통일**(위원장 정천구)=민족통일성 확보위한 불교사상보급(연변통해 북한포교및 통일운동전개), 통일준비하는 불교도자세 확립, 북한불교 조사 연구, 한국정치상황 분석과 불교적 대안개발.

△**포교 신행**(위원장 조흥식)=초기경전 정신 계승한 현대불교의 이해와 교육, 생활의례 대중화·보편화.

△**교육 학술**(위원장 정병조)=세미나 통한 연구발표 개최, 96년실시하는 중등과정 종교교육 적극적 방안마련, 재가불자 정기강좌개설, 정법포교와 불교의례의 대중화, 법요집 학술지발간.

△**언론 출판**(위원장 공종원)=교계언론 출판 현황조사, 일반언론매체 모니터, 교과서의 불교왜곡 편향시정.

△**경제 과학**(위원장 오상환)=불교교리 과학과 연계, 신경정신분야치료에 불교사상도입, 기업경영철학·소비자형태 교리적접근, 사찰 P.C 묶어 국민교육장으로 활용, 기초과학과 불교사상 합일성모색.

△**사회 복지**(위원장 권오성)=보건복지 교리적연구, 임종·장의방안과 실천, 복지회관 위탁경영문제 시정.

△**문화 예술**(위원장 정경연)=문화예술인 조직화, 전문활동불자 일체감조성 및 지원.

나의 수행일기

김성기 (건영농산 부회장)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의 법문'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부처님의 지고한 불법에 귀의하여 인연을 맺어온지도 벌써 수십년이 흘렀다.

나의 수행생활은 행(行) 주(住) 좌(座) 와(臥)하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생활불교로 시작된 나의 신앙생활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어 2천여 성상의 맥을 이어온 것도 언어·문화·생활속에 그 생명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활불교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입문했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모체가 되어 항상 초발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신앙생활은 머리나 문자의 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모두 버리고 하심하는 마음이 뒷받침될 때 참된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시적인 실천행이 아닌 꾸준한 용맹정진이 이루어질 때 불자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금강경〉〈반야심경〉〈법화경〉 등의 경전을 결에 않으면 그날 하루는 왠지 가볍지가 않다.

부처님의 법을 찾아 수행정진하는 동안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첫째, 기도하고 참회정진하여 얻는 것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주고도 얻지 못할 부분일 것이다.

둘째, 성격중에 큰 장애요소가 되었던 산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염불과 기도로서 안정된 마음을 갖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선조와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조상은 그만한 마음을 되돌려주는 덕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 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매일 경전독송·군포교 관심

기도도량 순례정진 …심신 모두건강



두고 불법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소홀이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부처님의 법향이 살아 숨쉬는 도량을 찾아 부처님전에 향 꽃등의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닦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나의 수행생활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여보니 대덕스님들과 법사님들의 법문에서 소중한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생활의 대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지식으로 배우는 차원을 넘어 포교수행하는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혼탁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부처님의 진리 수행은 반드시 필요한 이 사회의 진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규범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불교에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깨달음이란 경지에는 이르지는 못했어도 그 경지에 뜻을 두고 수행하고 있다.

나는 전국의 유명 기도도량을 찾아다니면서 기도정진을 하고 내 자신의 번뇌를 끊고 참된 기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 내 자신과 밤낮없이 싸우고 있다.

이것이 불교를 좋아하는 함이요, 또한 부처님의 깨달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나의 수행생활이다.

한때는 종교를 원시적인 생활 방편이며 인간의 무지한 행위로 여겨 왔지만 불법에 귀의하면서부터 가치관과 생활관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하루라도 경전을 독송하지 는 그 자리를 알았다.

셋째, 많은 대덕스님들의 법을 통해 신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믿음이 수행의 기초적인 단계가 되어야 신심의 활력으로 불법의 세계에 보다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를 알고부터 내 자신의 수행보다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법을 알고 져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선 것이 전방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군불자들 위한 군불교진흥회의 활동이다.

앞으로는 군불교의 활동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반적인 영역에 나의 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나서서 불교를 배우고 포교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

결국 불교의 참된 수행은 무엇보다도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일 것이다.

올바른 생활의 규범을 준수하고 기도나 염불 또는 참선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다.

막다른 곳에 도달한 지구촌의 환경오염 문제도 결국에는 불교의 진리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한사람으로서 중생의 옷을 벗을지언정 굳은 마음의 서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지구촌의 환경오염문제에서부터 모든 사회 문제에 불자들이 앞장 섬으로써 21세기는 밝게 열릴 것이다. 필자는 이런 서원을 전제하고 항상 용맹정진 하겠다.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35×70cm 수묵관음도

관세음보살이 이땅에 나투심은
일체중생 번뇌를 멸하여
성불의 연을 지어가게 함입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가정마다 모시고
우러러 예경하면 불심 증장과 함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음도는 금산스님(대구예인협추대작가)이 한점씩 정성들여 그리시고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및 불화모시기 운동전개를 위해 염가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구입문의 : 02) 841-7165
●보급처 : 불교교육연구원 ·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5-5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절찾아 가는 길

점점 녹슬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팜플렛·세계불교기·법륜기·만불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가람쇼회 대표 이 주 영 合掌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

鴦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②

後學 未聞旨趣 應須慕聞先知
후학 미문지취 응수박문선지
將謂出家 貴求衣食
장위출가 귀구의식
佛先制律 啓創發蒙 軌則威儀 淨如冰雪
불선제율 계창발몽 궤칙위의 정여빙설
止持作犯 束斂初心 微細條章 革諸猥弊
지지작범 속렴초심 미세조장 혁제외폐
毘尼法席 曾未切磋 了義上乘 豈能甄別
비니법석 증미도배 요의상승 기능견별

후학들이 도에 나아갈 뜻을 듣지 못하여 모름지기 앞서 배운 이에게 널리 물어 마땅하거늘
(그때마다) 출가가 어찌 옷·밥 구하기를 귀히 여기랴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먼저 계율을 제정하사 몽매함을 일깨워주는 궤범과 위의가 깨끗하기 마치 빙설 같았으니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계율을 바르게 지녀 행함으로써(止持作犯) 발심수행의 초심을 거둬잡고,
조목조목 미세한 부분까지 모든 난잡한 폐습을 고치셨던
설법의 자리(비니법석:계율을 설한 법석)에

喉鉢作聲 食畢先起 去就乖角 倡體全無
완발자성 식필선기 거취괴각 승체전무
起坐忩諸 動他心念
기좌종제 동타심념
不存些些軌則 小小威儀 將何束斂
부존사사궤칙 소소위의 장하속렴
後昆新學 無因倣效
후곤신학 무인방효

(또한) 발우공양 중에는 소리내고 끝마치면 먼저 일어나 나가는 등 행주좌와 중에 도무지 법도에 어긋나기만 하여 중 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
(참선할 때 조차도) 앉고 일어섬에 모두를 놀라게 하여 다른이의 마음까지 동요케 하니
이렇듯 사소한 궤범이나 위의조차 갖추지 못함에 장차 무엇으로써 마음을 거둬 잡을 것인가.
뒤에 새로 배우려는 이들이 인하여 본받을게 없도다.

"닦은것 없음에도 '나로 소이다' 마음만 높아져 좋은 도반과 친하려 하지 않누나"

서 외람스럽게도 일찍이 (부처님을) 모시지 못했으니
(그대들이) 진실하여 위없는 법문을 어찌 능히 밝게 가려 내겠는가.

可惜 一生空過 後悔難追
가석 일생공과 후회난추
教理 未嘗措懷 玄道 無因契悟
교리 미상조회 현도 무인계오
及至年高臘長 空腹高心 不肯親附良朋
급지년고랍장 공복고심 불긍친부량붕
惟知�larr做 未諳法律戢斂全無
유지거오 미암법률 즙렴전무
或大語高聲 出言無度 不敬上中下座
혹대어고성 출언무도 불경상중하좌
蒙罹門聚會 無殊
바라문취회 무수

애석하도다.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고나면 후회한들 (가르침을) 좇기 어렵게 된다.
진실한 가르침에 일찍이 마음을 내지 못했으니 불도를 좇아 자성에 계합하여 깨달을 인연이 없도다.
급기야는 나이먹어 법랍만 많아져서는 닦은것 없음(空腹)에도 '나로 소이다' 하는 마음만 높아져(高心) 좋은 도반과 가까이 친하려 하지 않으며
오로지 거만하게 남을 업신여길 줄만 아니 법문과 계율의 참뜻 깨우치지 못해 안으로 마음모아 관할 줄 모르는 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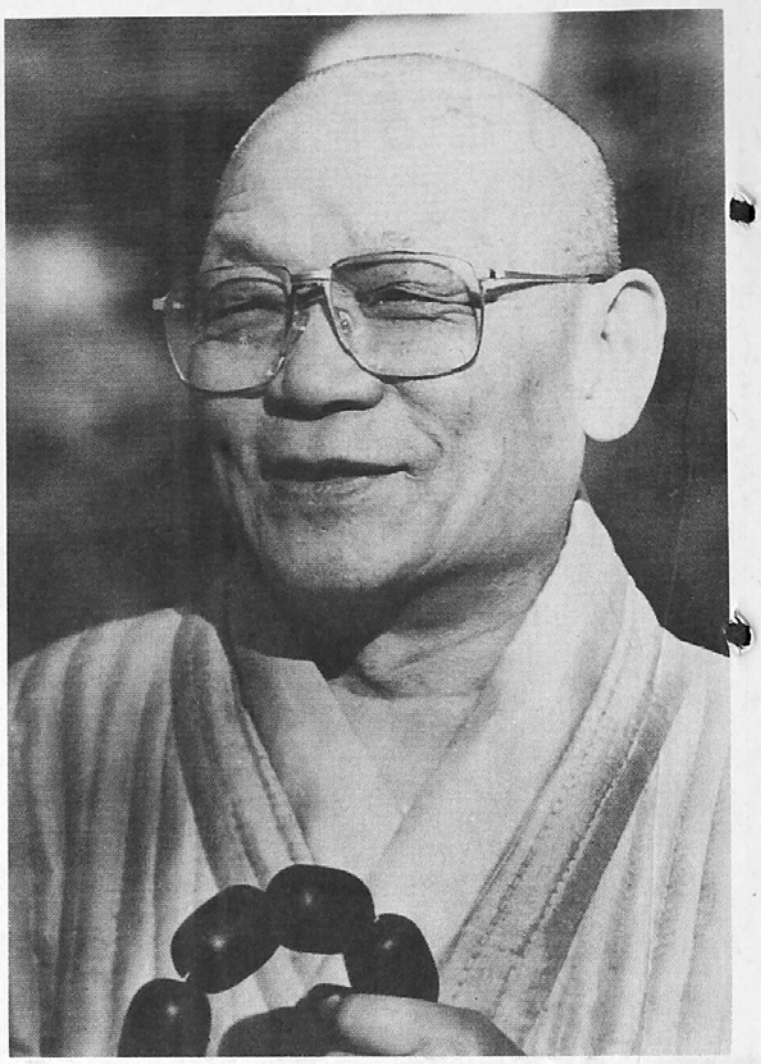
總相覺察 便言我是山僧
재상각찰 변언아시산승
未問佛教行持 一向 情存麁糙
미문불교행지 일향 정존추조
如斯之見 盖爲初心 慵惰
여사지견 개위초심 용타
蹉蹉因循 枉再人間 遂成蹉跎
차차인순 임염인간 수성소야
不覺 謾踵老朽 觸事面墻
불각 용종노후 촉사면장
後學咨詢 無言接引 縱有談說 不涉典章
후학자순 무언접인 종유담설 부섭전장

겨우 형상을 살펴 안다 하여서는 '나야말로 산승이로다' 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닦는 도리가 무언지 듣지도 못하고 한가지로 (한결같이) 조잡한 것에만 뜻을 두고 있음이로다.
이같은 소견은 모두 다 처음 먹은 마음이 게을러서
도철(먹고놀기만 좋아하는 짐승)같이 먹고 놀기만 즐기며 그럭저럭 인생을 보내 드디어는 (말이) 성글고 (행동이) 거칠게 된 것이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걷기도 전에 늙은 것이니 (일을 마치기는 커녕) 더는 나아갈 곳이 없이 담장에 코를 박은 꼴이로다.
(그러한 지경이니)후학이 물어오면 말 않는 것으로 접인하고 비록 설법납네 한다해도 경전의 내용과는 관계된 말이 못된다.

龍眼

지상 법석

"마음열어 풀어 놓는 그곳



화산스님 〈대구 보광원 조실〉

약력
△1919년 양산 生
△1936년 몽초스님 은사로 득도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통도사 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금강산 마하연, 오대산 상원사 등서 안거
△통도사 강주 지냄
△현재 양산 천불사, 밀양 표충사 조실

부처님의 귀한 진리를 어찌 먼 곳에서 찾을 것입니까. 꽃마다 풀마다 그 이치가 다 드러나 있는데 어찌 별도로 찾을게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익혀온 10가지 악행과 악업 때문에 업장(業障)이 가려 자신에게 있는 경(經)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마다 무진 한량없는 보배가 자기 자신에게 있건마는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부처님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며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남의 경만을 읽으려 합니다.
우리 중생은 자성(自性) 자리가 자신에게 있건만 찾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람마다 좋은 보배구슬이 있건만 찾지 못하는 까닭에 부처님이 헌옷을 걷어부쳐 보배구슬을 찾도록 했습니다.

자기속에 있는 보배

부처님은 허무한 이상(理想)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 사는 이치를 들어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법은 한량없는 중생이 닦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은 무량겁 동안 생사를 거듭하며 지은 업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지은 업을 자신이 닦아낸다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닦아서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닌 한량없는 보배를 찾아 지니면 세상 영겁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요 〈법화경〉이요 〈반야경〉인 것입니다.
육도(六道) 윤회에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무(無)로 돌아갈 몸뚱아리를 지닌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살아서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바다같이 쓰면서 폭넓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불법(佛法)을 믿었다는 표적입니다. 길이 좁은 골목에서는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불교는 넓은 대로(大路)라서 누구든지 여유있게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불법은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모든 걸 놓고 용서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빌딩, 땅, 보물 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답게 남주고 갈 것이니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기에 구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고(苦)가 많습니다. 애착이 많으면 슬픔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기에 악순환을 되풀이 합니다. 사람의 정념(情念)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도 애정에 사로잡혀 울다 갑니다. 항상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 번뇌 망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결국 번뇌 망상이 다하면 끓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병에는 의사가 따로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일체 유위법(有爲法)은 꿈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없어질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없어질 나를 붙잡고 항상 심란하게 생활합니다. 다 풀어놓고 마음 조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걸 잃습니다.
우선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맞춰가다 보면 불교적인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은연중에 실천이 됩니다. 튼튼하고 훌륭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과 목재를 서로 잘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남이 내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의 마음을 헤아려 맞춰나가십시오. 자꾸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꿈

물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연법으로 얽힌 인연세상이라 더욱 뜻대로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법문을 듣거나 경을 읽으면 전생에 지은 빚을 갚기가 한결 수월해 지겠지요.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업보의 빚을 갚으면서도 무상(無常)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과 망념(妄念)이 없는 그곳에서 진심이 우러나고, 진심을 견지해야 무상을 관(觀)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는 이세상 으르렁거리고 원수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풀어놓는 그곳에 남과 내가 하나 되는 마당이 열립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苦)'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울며 왔다 울며 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깊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별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을 뗄일 때도 울고 정을 뗄 때도 우는 게 사람살이입니다. 이 세상이 잠깐 쉬었다 가는 꿈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이 육신은 고름·피 덩어리입니다. 공덕을 지으면 오히려 빨리 육신을 벗는 도리가 있습니다.
모두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남·녀가 주례 앞에서는 "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지만, 거짓 맹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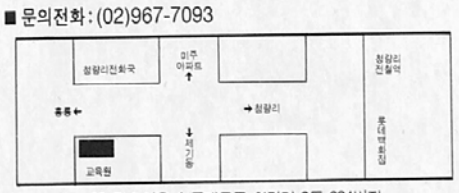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제13기 학인모집요강

불교전통의식으로는 불교음악으로서의 범패와 승무(바라춤, 착복무)를 볼 수 있다.
범패란 전통불교음악을 지칭한 말로서 그 기원은 인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범패음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의 한국 寺院은 영산회상의 환희심을 잃은 지 오래이며, 몇몇 특수사찰과 교육원에서 그 명맥만이 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梵唄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이 실추되어 있는 바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잘 전승해 주었을 때 그 종교적 문화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이에 본 교육원에서는 사라져가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발전시키고저 제13기 전통의식 교육생을 모집하게 되었는 바 전통의식에 관심이 있으신 스님 및 신도님께서는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원장 合掌

교 육 과 정

■기초과정: 사찰(사중)생활에 필요한 기본의식 및 예불·불공
■기본과정: 천도의식 49재의식 범패·범음 등 제반의식
■요잡과정: 바라춤, 착복(나비춤) 태징치는 법 등
■강 사: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 임명수 원장 직강
■교육기간: 기초과정 3개월 기본과정 6개월 요잡, 바라3개월
기초과정-오후 4시 ~ 5시 30분
기 본 반-오후 6시 ~ 8시
■교육시간: 주 4회(월 ~ 금요일)
■접수일자: 1995년 2월 15일 ~ 3월 14일
※(AM 10:00 ~ 20:00) 상담자 대기
■개 강: 3월 16일
■자 격: 종단에 구애 없이 전통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 및 사찰관리자, 신도 모두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육원 발행), 사진 3매(반명함)
■문의전화: (02)967-7093



130-014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청량리 전화국 건너편 3층 ☎ 967-7093
상담자 항시 대기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제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生水, 해독차, 엄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수련내용: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악물중독 외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안 내: ☎ (0593) 34-1115~6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을 보셨거나 거처를 알고 계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사람이 확인되면 후사하겠습니다.



사례금: 오백만원 정

•성 명: 이용희
•주민등록번호: 521115-1154923
•생 년 월 일: 52년 12월 15일

인상착의: 나이보다 어려보이며 키는 165cm
몸 매: 가날픈편
실 종 일: 87년 7월
정신건강: 이상없음
학 력: 성균관대학원
찾는사람: 이용희의 어머니

연락처: (032)522-0432
전화담당: 박삼수

사 원 모 집

"함께할 불자님을 모십니다"

•남자: 운전경험 유한자
자격: 군필·면제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불교인으로 자부하는 자
보수: 월 80만원 모집인원: 1명
•여자: PC과정을 수료한 자
모집인원: 1명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문의처: 가람기획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빌딩 2층
전화: 720-5121,720-2874 / 팩스: 732-3769

지상 법석

남과 내가 하나되는 마당"

우선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맞춰가다 보면 불교적인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은연중에 실천이 됩니다. 튼튼하고 훌륭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과 목재를 서로 잘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남이 내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의 마음을 헤아려 맞춰나가십시오. 자꾸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下心공부는 업장 소멸·깨달음 밑천

욕심 많으면 苦도 많아…'내것' 없어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남녀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팔고 사는 거리의 상인입니까? '사랑 장사'입니까? 사랑받는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란 걸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을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사랑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을 사랑하는 대보살이 되어 내 부모, 남편,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불·보살은 중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낙(樂)을 삼습니다. 사랑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랑의 멩세가 부정수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승에서 서로 울고 돌아서더라도 영원한 참사랑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사랑의 가면을 벗자

부처·보살의 사랑을 장차 일체중생에게 널리 보급해 그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불교, 생활하는 불교를 믿어야 합니다. 학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든 사랑이든 상(相)을 갖고 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즉일(多卽一)이요 일즉다(一卽多)'입니다. 모두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법문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 등 인생에 있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찌꺼기입니다.

우선 불법(佛法)을 믿는 정신자세가 바로 돼야 합니다. 불법을 바로 알게 되면 무한한 광명이 나타나고 모든 재앙이 소멸합니다. 운명과 팔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업보를 지닌 중생의 몸에 무엇을 입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따르는 이 육신을 가꾸고 닦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헛것이요 실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마시고 밥먹고 사는 건 모두 업력의 소견입니다. 전생의 과보로 인해 의식주 문제가 항상 야기됩니다. 불법을 믿고 참회 기도함으로써 신심을 일으키고 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이란 실천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처님 법을 믿게 되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줘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잘 안맞고 얼킨 것이 있으면 살살 구슬러서 풀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로 말미암은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 주위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주위 사람을 즐겁고 편하게 해야 내가 편안한 것입니다.저 한강가의 버들꽃이 피었다 지듯 세상이 무상(無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불법을 지닐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 주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사는 주소도 정신이 없을 땐 잊어버리는데 아마 더 감감할 겁니다. 살려고 태어났는데 무슨 마음으로 어쩌자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이요 회자정리(會者定離)'입니다. 죽더라도 그 까닭을 알고 값있게 죽어야 합니다.

불법은 바로 전하기도 어렵고 바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닌 마음의 보따리를 훌훌 털어내야 법문이 들어갑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남겨 두고서는 삼세제불(三世諸佛)이 법을 설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을 설하는 법사(法師)도 아는 걸 다 비워내야 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법문이 안됩니다. 아는 건 공부하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법을 설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다 비워놓고 대좌하는 가운데 불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보따리를 비워내야 진정한 발심(發心)이 시작됩니다. 떨어 비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정녕 마음이 가난해 집니다. "작년에는 송곳하나 들고 내 땅이라고 찾아가 꼽을 곳이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땅도 땅에 꽂을 송곳도 모두 잃어버렸네!" 이런 경지에 불법이 있으니 다른 소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헤아리는 기도

비우고 없는 그자리. 거기에 도리(道理)가 있습니다. 말없는 가운데 도리가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시방(十方)이 다하도록, 이 세상이 다하도록, 일월이 닳고 허공이 죽는 그 차원만큼 무진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찾자는 게 불법공부입니다. 불교는 마음 닦는 도리에 대한 가르침(敎)입니다. 마음닦는 불법은 너와 나를 위해 필요합니다.

불법공부에는 하심(下心)공부가 제일입니다. 불법공부를 한다고 견성성불(見性成佛)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갈 때 비행기, 기차, 버스 등을 타고 갈 수 있듯이 불법을 깨닫는 방법도 다양한 것입니다. 특히 하심공부는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심공부를 하게되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공덕을 쌓게 됩니다. 참선, 시주, 염불, 독경을 하기 전에 하심공부부터 해야 합니다. 하심공부는 더 수승한 공부를 성취하기 위한 밑천이 되는 수행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심을 내게 되면 가정이 화평해지고 천하가 태평해 집니다. 하심공부는 마음을 다루는 공부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탈바꿈돼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달라져야 합니다. 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으며 차돌처럼 단단한 탐진치 삼독심을 녹여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불법을 생활화하는 길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딸의 상(相)을 버리고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불법을 닦는 일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공명을 내던지고 설산(雪山)으로 고행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참된 인생을 걷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궁전에서의 즐거움과 설산에서의 고행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백겁 천생에 맺은 부모의 인연을 뒤로하고 설산으로 떠난 것은 생사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세상 인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 머금은 빵이 진짜이 나듯, 참된 인생은 고난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힘겨운 여행길을 떠나는 수행자는 공부에 앞서 먼저 마음 보따리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참선과 염불을 할 경우 아만(我慢)만 쌓일 뿐입니다.

마음을 닦는 길은 생사 윤회를 벗어나 대자유를 이루는 길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⑮



김 성 규

암의 불교적 해석

스트레스 체내 오래 축적되면 암 유발

탐진치 만병원인 … 마음이 면역 조절

우리의 인체는 약 10조(10^{13})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그룹과 계열로 나뉘어서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한다. 이들 조직과 기관은 여러가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다. 어떤 세포들(예:신경세포)은 태아의 발달중이나 유아기에 형성된 후에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으며, 간세포와 같은 세포는 성인이 되면 거의 분열하지 않으나 간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파괴되는 세포를 보충해 주기 위하여 계속 분열한다. 이와같이 우리의 신체는 하나의 세포와 그 자손들의 분열에 의한 산물이다. 수정란에서부터 노년에$_{15}$ 이르러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체는 10경(10^{15})회 정도 세포분열을 하게 된다.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하는 조직에서 세포의 전체수는 세포의 죽음과 이동이 세포의 생산과 정확하게 같을 때에만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태어나 성인에서나 세포분열의 모든 프로그램은 매우 엄격한 조절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와같은 시스템이 다윈의 도태(淘汰)와 통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는 세포의 변종(變種)이 나온다고 기대하여 볼 수 있는데 이 변종은 '적합성'이 증가된 것(정상세포보다 더 빨리 증식할 수 있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주위의 세포대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위의 세포들을 희생시키면서 수를 증가하는 세포군이 나타나는데 어떤 정상적인 제약을 벗어나 증식을 하면서도 정상영역 내에 있고 주위의 조직을 침범하지 않는 양성종양(良性腫瘍)으로 피부의 작은 사마귀와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때때로 매우 커지게 되는 아주 흔한 자궁 섬유양종(纖維樣腫)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비정상 세포가 커져 주위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또는 혈류를 타고 먼 곳으로 다른 장기에 퍼지는 능력을 가져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악성종양(惡性腫瘍) 또는 암이다.

암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발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병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상세포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그 이상세포에 대한 면역력이 유전적으로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유전적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워싱턴 대학의 라이리 박사는 암에 걸리기 쉬운 종류의 쥐를 2군으로 나누고, A군의 쥐에게는 스트레스를 주고 B군의 쥐에게는 전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더니 스트레스를 받은 군의 92퍼센트가 발암을 했음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군은 겨우 7퍼센트밖에 발암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외에도 색소, 석면, 콜타르와 같은 발암물질이 암을 일으킬 발생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미국이나 일본등 지역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음식물과 관계되는 식생활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신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암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필이면 왜 내가?' 하는 암의 발병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관한 의문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마음과 신체와 감정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심리적 상태와 질병의 관계를 밝힌 초기의 연구는 1920년대 프라하대학의 한스 세리에박사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의 연구 결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체내의 면역조직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암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의 신체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에 싸우든가, 도망을 가든가 어느 쪽이 되든지 신체적 반동이 즉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체에 아무런 해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생체의 반응이 방해받은 경우에는 생체에 대하여 유해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만성 스트레스). 또한 영국의 헐프리박사는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최면요법을 시도하여 성공함으로서 인간의 심리상태가 면역활동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신체와 마음의 연결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래스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심, 진심, 치심이 바로 스트레스이며 만병의 원인인 것이다. 스트레스가 수 십년 축적되면 암이 되는 것이다. 카오스이론에서의 나비효과(북경에서 일어난 작은 바람이 파리에서는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는 윤회를 인정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아무리 적은 바람이라도 태풍의 원인이 될 수 있듯이 나날이 쌓이는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결국은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결국 현대의학에 의한 유전자연구가 진행되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부딪치는 한계는 물질의 벽이 될 것이며,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마음에서 주어질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718-0973~4 • 호출기: (015) 305-3933 • 담당자: 이 계 천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

주요내용 :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넉다비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7 미도 B/D307
전화: 직통) 253-6894~5
팩스: 785-1228 , 253-6895

고은 불교 대하소설



〈16〉

하나 둘 불어나다

선장 배만득은 언젠가 객주인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송도 쪽의 인삼 화물에 사나운 물결이 덮채서 그 화물 일부가 폭시 젖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도 있었는가 하면 작은 액수지만 몇번의 빚도 있었던 것이다.

인담이 객주인에게 갚으라 했던 2백냥도 그가 진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번의 일터를 알아보는 것도 이 객주인보다 다른 막거간꾼들이 모이는 나루터 노적화물 거간꾼에게 다녀오는 길이었다.

"아무튼 … 이렇게 용케 만난 것은 부처님 덕분인 것 같구려"라고 바다 위의 안전 때문에 이따금 예성강 하구 언저리의 반야사에 시주를 해온 신도답게 인담을 반겼다.

놀라운 것은 그가 우녀를 싼 값으로 사들였을 때 이년아 저년아하고 막말로 다루던 것과는 달리 어느새 우녀의 어떤 기품때문인지 사뭇 정중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우녀가 함께 가자고한 말에 도대체 어디를 가자는 것이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던 것인가.

"어때? 가겠어? 이 코 베어가는 포구에서 쳐박히기보다 어디 가서 신선이나 되어보지 않겠어?"

그의 한 패거리 나이 지긋한 곰보 사공더러 의향을 묻는 것이었다.

"이 몸이야 배선장 꽁무니에 달린 방울 팔자인데 … "라고 간단히 순응하는 것이었다.

"참 좋습니다!"라고 우녀가 국밥집에서 일어나며 말하였다. 정작 인담은 이렇게 식구가 불어나는 무욕도 생활의 앞날에 대해서 슬며시 걱정되지 않는 라도 아니었다. 이제까지 인담 혼자서 살아오다가 거기에 우녀가 더해졌던 것이다.

그것만으로 바랄 나위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네사람이 되었으니 우선 넷이라는 식구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우녀와의 호젓한 수행의 매혹이 깨어질 수 밖에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새 생활이 싫었던 것이다. 인담과 우녀의 수행은 마치 물 한그릇 떠놓고 혼례를 치룬 신접살이와도 같았다.

바로 그런 행복이 다음 단계의 알수 없는 수행으로 바뀌어갈 판이었다. 인담의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무욕도의 일을 아무런 의논도 준비도 없이 변화시키는 우녀의 속셈을 안타깝게 여길만 하였다.

하지만 우녀의 즉흥은 즉흥만이 아니었다. 어떤 지혜의 순간이 결정하는 장래에의 확신인지도 몰랐다.

"갑시다"라고 말하는 우녀야말로 그녀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인담 배만득 그리고 사공 곰보가 그 말대로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머리에 무명천을 둘러쓴 우행자는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었다.

제물포 바깥나루(外浦)에서 돗 한 폭짜리 가축 실어가는 배에 선개를 내고 아랫녘 포구로 가는 일을 배만득이 쉽게 해결하였다.

"묵은 선장도 선장은 선장입니다"라고 인담이 애써 우스개소리를 넸다.

그런 인담으로서는 그런 배만득이나 곰보가 거의 일자무식인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아무리 불입문자(不立文字)의 집안 일지라도 문자를 다소 알아야 입(立)이든 불입(不立)이든 공부로 삼을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점을 좀 답답하게 여겼다.

임춘의 〈서하문집〉이나 그밖의 여러 송대(宋代) 게송(偈頌)들을 펼치는 산중 풍류는 이제 그들이 만드는 환경에서는 외톨박이로 될 터였다. 나중에 박히는 못이 먼저 박힌 못을 밀어내는 셈이라 했던가.

바다 위의 여행이 한결 고단하지 않았다. 때마침 파도도 양전하였다. 이따금 삐걱대다가 마는 키 쪽의 마찰음 밖에는 저기압의 바다 위는 그 밑의 고기들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적막하였다.

밤에는 사윈 달이 늦게 떠서 밤새도록 하얀 달빛을 내려보내고 있었다.

배에 탄 가축들도 배가 떠날 때와 달리 어느 놈 하나 꿀꿀거리는 일을 그만두고 있었다. 짐승이 그들의 미래와 현재를 사람보다 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바다 일대의 깊은 곳에 용(龍)이라도 잠겨있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바다 위의 가축들이 저렇게 조용해진 것인지 모른다.

이런 여행으로 다음날 충분히 습기와 시장끼에 익숙해진 아침나절에 서산 어리굴개펄 위쪽 모래밭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인담의 바랑이 한층 더 무거웠다. 배에서 물 속을 절벅절벅 걸어서 물에 올라섰으니 일행의 몰골이 후줄그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무욕도가 보이는 갈대밭 위 무덤가에 인담과 우녀가 떠날때 몰래 보았던 청상과부가 서 있었다. 우녀가 성큼 그녀에게 올라갔다.

무턱대고 말을 던졌다.

"나는 저 무욕도 암자에서 공부를 하는 계집입니다"

"네에"

그녀는 눈물이 젖은 눈을 가늘게 하며 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이 산소에 오셨습니까?"

"네에 바깥분이 출지에 떠나셔서 … "

"하필 이곳 바다 바람이 센 곳에 산소를 쓰셨습니다"

"청나라에 건너가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아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고 이곳에 무덤을 쓰도록 하셔서 … "

"그럴 농사짓는 분은 아니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집안에서 8괘역점(八卦易占)을 익혀 가근방 사람들의 산대를 놀리며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언니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입니까?"라고 우녀가 여자들끼리만 내밀한 교감으로 찔러보았다.

아니 어떤 대답이 나오기 전에 말을 이었다. 마치 재빠른 솜씨로 화살 두대를 거푸 날리는 것처럼.

그녀는 이런 우녀의 당돌하기까지 한 질문에 한동안 망연히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한 마디가 나왔다.

"글쎄요, 어쩔바를 모르겠습니다. 시댁에서는 견딜만하지 못한 처지이고 … 워낙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고 시어머님께서 날이날마다 소리치시니 … 친정 오라비가 참다 참다 못하여 데려가려는 것을 아직 머뭇거리는 처지입니다"

보아하니 그녀는 단정한 소복차림과는 달리 입술의 핏기운이 없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하루에 한끼 누룽밥 천신 밖에 못하는 처지입니다"

"시어머니 강짜 때문이겠지요. 언니? 우리와 함께 무욕도로 건너갑시다"

"…"

그녀는 좀 낯선 표정으로 멀리 바다에 떠 있는 무욕도를 바라보았다.

"저기 가 … 나하고 세상 잊어버리는 공부나 실컷 합시다. … 실은 언니를 강원도 어디로 데려갈 남자가 있는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마나!"라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핏기운 하나 없는 핼쓱한 얼굴에 부끄러움이 즉시 역력하게 드러났다.

"거기 가도 언니는 복될 수 없습니다. 언니는 천상 세상을 버리는 공부에 딱 맞으니까요!"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우녀의 말은 그 말에서 도망갈 수 없게 단단히 그 물을 치고 있었다.

"저 무욕도에서는
세상의 어느곳도 마음속으로
자유자재 날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 다섯사람은 그럭저럭 무욕도에 건너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배는 무욕도의 해송을 베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녀는 섬에 건너오기에 앞서 남정네들이 솔밭으로 들어간 사이 과부의 남편 무덤이 있는 부근에 그녀가 신은 미투리를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그곳은 서너길의 버랑이 져 있는 곳이어서 누가 보면 그 아래의 소용돌이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꾸며질만 하였다.

그러므로 청상과부는 버선발로 무욕도를 처음으로 밟은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는 저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

"언니 이름 있어요?"

"난이(蘭伊)이어요. 청주한씨의 한난이어요"

"스님!"하고 우행자가 인담을 불렀다.

"언니 법명(法名)을 지어주세요. 먼저 …"

인담은 우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름을 지으라면 짓고 이름을 고치라면 고쳐야 하였다. 이제 이 섬의 중심은 우행자가 차지한 것이었다.

"합두(合頭)라 불러보도록 …"

합두라면 저 투자화상(投子和尙)의 시에 나오는 합두어(合頭語)에서 딴 것이었다. 본질이나 요점을 옹겨잡은 불번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그 언어를 쓴 사람을 꼼짝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담은 한번 이 섬에 건너 왔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삼은 것인가.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이제 합두입니다. 합두행자"

그러나 당장 갈대암자가 비좁아 섬의 숲속을 헤치고 올라가는 저 위쪽에 지어놓은 움막도 머물 곳이 되어야 하였다. 거기에 인담과 배만득 곰보가 있고 기왕의 아랫쪽 갈대암자는 두 여자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새벽 예불과 아침 낮 공양은 암자에 모여서 하기로 되었다. 배만득의 이름은 만화(萬化), 곰보의 이름은 우선 남(南) 처사로 지어졌다.



그림 · 조향숙

이제 네 사람이 되었으니
우녀와의 호젓한
수행의 매혹이 깨어질 수 밖에 …

으뜸 공양

현대불교 법공양에 동참해 주신 불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내일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대불교」 법공양으로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좌절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동참하시는 방법은 ———

1구좌 이상(1구좌:10,000원)
신청 방법 : 본사에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은행 지로(통신란에 법보시라고 꼭 써 주십시오), 지사 지국 이용
지로 번호 : **3054464**

현재 불자 여러분들이 법공양하신 「현대불교」는
군 법당 140여 개소, 병원 40여 개소,
복지단체 및 개인 70여 개소, 교도소 40여 개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지나 이웃, 소중한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고 싶은 경우에는 ———

받으실 분을 지정하셔서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구독 기간 만큼 신문을 보내 드립니다.
(비지정 동참도 가능합니다)

■ **1995년 1월부터 법공양을 받으시는 분들** (1995.1.1~2.13 현재)

▸인천시 최진수 ▸이천군 박금성 ▸구로구 서정순 ▸천안시 권오목 ▸진주시 허재용 ▸마산시 표영범 ▸양평군 손영준 ▸도봉구 차영실 ▸도봉구 견보인 ▸군위군 은희완 ▸강서구 이상조 ▸서초구 최덕자 ▸중구 김종훈 ▸서초구 이준석 ▸용산구 김영석 ▸용산구 김진상 ▸광주시 회정스님 ▸부산시 염계자 ▸서초구 김순희 ▸인천시 김완종 ▸부산시 정배 ▸원주시 신영호 ▸강동구 권정임 ▸원주군 소쩍새마을 ▸구미시 봉죽사 ▸춘천군 불암사 ▸중구 유재춘

■ **법공양에 동참해 주신 분들** (1995.1.1~2.13 현재 신청분)

▸덕본 스님 12 ▸정진경 60 ▸익명 독자 50 ▸이석순 1 ▸이명환 1 ▸정기동 1 ▸김화일 4 ▸조정희 2 ▸김광숙 3 ▸조철희 2 ▸권준영 40 ▸익명 독자 5 ▸이주영 6 ▸윤동현 4 ▸유재춘 5 ▸이승각 4 ▸신정숙 2 ▸최명화 1 ▸윤숙천 2 ▸이동구 50 ▸김은주 4 ▸귀동 스님 4 ▸이주영 2 ▸정성호 2 ▸김경미 2 ▸정현준 1 ▸민해정 4 ▸한마음선원 진주 지원 300 ▸신재철 8 ▸배주노 1 ▸최상숙 1 ▸윤옥자 1 ▸우병연 1 ▸노봉임 1 ▸최봉희 1 ▸김석동 1 ▸구함자 1 ▸이만호 1 ▸김경복 3 ▸임종백 2 ▸이미금 1 ▸강원기 1 ▸박임순 2 ▸김해숙 1 ▸양효성 20 ▸최종열 2 ▸박경수 10 ▸이순금 1 ▸이태호 1 ▸박미경 1 ▸표영범 1 ▸허재용 1 ▸한마음선원 마산 지원 청년회 13 ▸혜진 스님 10 ▸혜보 스님 10 ▸박임순 20 ▸배옥련 5 ▸양호성 5 ▸변듭수 3 ▸김재웅 5 ▸한창호 2 ▸최종열 5 ▸이익권 3 ▸최상숙 5 ▸김갑원 2 ▸이광재 5 ▸김경복 1 ▸강숙자 5 ▸구점덕 5 ▸우변연 3 ▸정인선 5 ▸박동준 5 ▸서동빈 1 ▸박경수 2 ▸이우상 10 ▸故 윤영원 30 (798구좌)

지금까지 총 **2453** 구좌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8881, 팩스 : (02) 737-0697

독 자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나의 의견

뇌사자 장기기증 유가족 결정 분위기 편승보다 심사 숙고를

최근 들어 장기기증운동의 대 사회적 확산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모 탈렌트의 장기기증이후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장기 기증의 타당성 유무를 놓고 많은 시시비비 들이 사회적 기류에 발맞춰 나감으로써 '생명공양실천본부'를 설립 운영하는 일련의 일들은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다.

얼마전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단체장 간담회까지 가져 종교적 차원을 뛰어 넘어 장기기증이 범 국민적 확산 도모를 위한 여러가지 방향을 모색, 지속적으로 서로 협조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니 더할 나위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생명의 존귀함이 저어될까 심히 우려된다.

사람의 몸받는 것이 몇 억겁의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불교의 진리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생명의 소중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필연의 것이다. 물론 장기기증이 자신의 자의로 이루어진 결정일 경우는 그 정도에 덜하나 사고나 재해등으로 인한 뇌사상태의 경우 대부분 그 가족이나 친지들 그 측근들에 의해 장기기증이 결정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경우 자칫 주위의 여건이나 병원의 권유들에 의한 결정이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의학계의 발전을 기대해 보며 발전만큼이나 자연적인 것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장기기증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할 필요성을 주장해 본다.

주부모니터 안영희 〈부산 범일동〉

현대불교를 읽고

한글 가로쓰기등 지면 산뜻 대중행복 이끄는 등불 기대

현대불교신문을 펴면 굵직하고 시원한 제자(題字)와 친근한 한글 가로쓰기를 찻눈에 보게 된다. 산뜻하고 편안하다. 불교 신행의 다양한 모습을 다룬 기사를 읽노라면 어느새 그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려웠던 경전이 쉬워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닫게 된다. 기쁘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는 민첩함도 읽는 이를 흐뭇하게한다. 기사를 찾고 창조해내는 기자들의 노고가 떠오른다.

앞으로 "현대불교"의 역량이 더욱 높아지면서, 가끔씩 보이는 오자가 없어지고 보다 세련되고 참신한 편집 기교를 갖춤으로써 신문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게 될 것을 믿는다.

현대불교 신문으로 불교가 거듭나고, 불자가 더욱 성숙해지고 불법이 한층 위대해질 내일을 전망한다. 그리하여 친숙한 불교의 쉬운 가르침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 인류의 행복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현대불교"가 해내길 기대한다.

한명숙〈천안 영성동〉

생활속 수행방편 소개를 한국고승들 일화도 궁금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정기구독하는 독자입니다.

나날이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지는것 같아 흐뭇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같은 범부들이 광소 생활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편들을 소개하는 난이 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불교의 중흥을 위해 애썼던 고승들의 모습들을 지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길 바라며 이만 그칩니다.

이은출〈경기 안양시 박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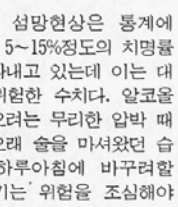
왜 관자재 보살인가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은 범어 아바르키테스바라(Avaioktesvara)의 의역으로 관자재, 관세자재 등으로 한역하기도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낭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의 첫머리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닌 '관자재보살'로 되어있다.

왜 관세음보살이 아닌 관자재보살로 번역되었을까.

서기 406년 구마라습 삼장이 번역한 법화경 제 25품에는 분명하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그 제목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관세음 대신 관자재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와함께 구마라습이 번역한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관세음보살로 시작되어 있다.



지 묵 〈송광사 스님〉

그런데 서기 649년 당나라 태종때 현장 삼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닌 '관자재보살'이라 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인의 문화풍토의 바탕을 이루는 유가의 삼강오륜 정신이 불교에 반영된 것이다.

유가에서는 왕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자를 쓸 수 없는 휘명·휘자의 풍습이 이었고 당시 부처님 경전 번역사업에도 이같은 휘명·휘자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당태종 이름 '이세민' … '世'자 기피 휘명영향 '관음'이라 줄여 쓰기도

당시 중국에서는 당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李世民)이었기 때문에 세상 세(世)자 쓰기를 기피하였고 태조의 치세기간에 삼장에 의해 번역된 반야심경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닌 관자재보살로 번역되었던 것이다.

중국 도제장석기에도 당시 당나라 사람들이 세상 세자를 피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중국 불학대사전에는 당나라때 세상 세(世)자 휘명으로 인해 관세음을 줄여 관음이라 이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편으로 관세음은 세상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관찰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린다는 뜻이며, 관자재는 세계를 관찰하여 자유자재로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는 뜻에서 관세자재, 혹은 관자재라 하였다.

이른바 건강칼럼 <15>

술

중독자의 금주증상

술을 마시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작심을 하고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만성적으로 마셔서 중독상태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만성적으로 중독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에 의해 갑자기 술을 끊어버리게 하면 외계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착각을 일으키거나 환각을 일으키며 헛소리를 하게 된다. 요령부득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정서의 기복이 심해지며 생각이 망상에 이르러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아주 심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도 되는 아주 무서운 병증을 나타내는데 이를 외학적인 용어로 "점망"이라고 부른다.

환각·공포감 보여…심하면 생명 잃기도

술뿐만 아니라 소위 급성 뇌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뇌의 병변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또 약물의 중독현상에서 금단증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아주 무서운 증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은 술을 마시는 동안 발생하는 급성 정신증상으로 여겼으나 실은 만성적인 주정중독환자가 갑자기 술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금단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대개 5년이상 장기간의 음주습관이 있고 안주를 멀리하며 깡술만 마신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자극받아 흥분을 잘하며 악몽을 꾸고 숙면을 못한다. 착각과 환각을 잘 일으키는데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듯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벽지의 무늬가 무서운 벌레처럼 보인다든지 하는 지각장애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흔히 환자는 이런 지각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오인한 나머지 도망을 가거나 싸우려고 하는 부적절한 행동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감각에도 이상이 있으며 냄새도 착각한다. 가스가 샌다고 예민해지기도 하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소리지르기도 한다. 공포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더러는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의식은 혼란해져서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위 지남력의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섬망현상은 통계에 의하면 5~15%정도의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수치다. 알코올을 끊으려는 무리한 압박 때문에 오래 술을 마셔왔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할 때 생기는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섬망상태는 술이 들어가면 일단은 멎는다. 그러나 술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반복되므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도 된다. 여기에서 적절한 치료란 입원을 통해 적절한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만성중독자의 무턱댄 금주는 섬망의 위험이 있다.



만화 法句經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이 향 원



웬 소금이 그렇게 비싸?

좀 특별난 소금-인산죽염 한통(250g)값은 45,000원. 보통 소금 값의 무려 1,000배 가량으로, 세상에 이보다 비싼 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싼 소금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값을 하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인산죽염은 염분이 몸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180도 바꾼 전혀 새로운 개념의 건강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속의 독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응축시킨 무공해 소금 - 인산죽염. 이 비싼 소금을 드셔야 하는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736-3171)

인산죽염은 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만듭니다.

150년을 잇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고객상담 736-3171



1995학년도 법사를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통신 야간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모 집 안 내

1. 모집학부 :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모집인원 : 출강 ○○명, 통신 ○○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자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02)720-1836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국제포교에 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함
· 각종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02)720-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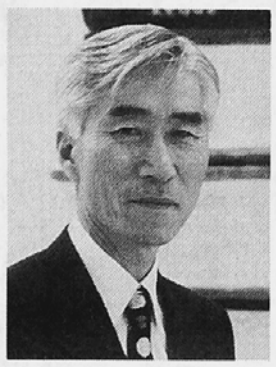
명사추천

불서 100선

묘법연화경

풍경(風磬)소리에 잠을 깨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중학 1~2학년 때에 순천(順天) 시내에 있는 용화사(龍華寺)라는 절에서 먹살이(寄食)를 했다. 풍경 소리에 새벽잠이 깨면 먼저 걸레를 샘물에서 빨아 들고 2층 법당으로 올라갔다. 불빛을 밝히고 먼지 한 점 있을 것 같지 않은 법당 마루를 쓸고 닦았다.

아침 예불(禮佛) 시간이 되면 스님들은 장삼(長衫)을 갖춰 입고 법당으로 올라오신다. 나는 스님들에게 목례를 하고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방으로 내려간다. 그럴 때면 방을 치우기 전에 윗목 앉은뱅이 책상에 놓여 있는 두툼한 한적(韓籍) 두 권의 책에 항시 눈길이 갔다. 두꺼운 참종이에 정교하게 인쇄된 5철본(五綴本) 겉장에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란 달필의 제첨(題簽)이 붙어 있다.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자면 순한문으로 인쇄된 글귀라 뜻은 알 수 없지만 심오한 진리가 글 속에 스며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 형 두
〈범우사 대표〉

그때 용화사에는 누비옷만을 입고 다니시는 길레스님이 한 분 계셨다. 언제인가 스님에게 〈묘법연화경(법화경)〉이란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이 불경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온 뜻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로, 입진왜란 직후 순천 송광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7卷 3冊분인데 한 책이 모자라 완질이 아니라며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그 후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불경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 5·16 군부쿠데타가 난 후 고서점을 경영하면서 한용운 선사의 불교대전 등 많은 불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묘법연화경에 대한 관심은 어느 불경보다 깊었다. 감수성이 예민하였던 중학교 시절에 가졌던 호기심 같은 것인지 모른다.

나는 출판업을 시작하면서 친구인 박혜경 스님에게 묘법연화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꾸며 내고 싶으니 원고를 써 달라 간청을 하여 〈법화경(묘법연화경)입문〉이라 이름 붙여 발간하였다.

이 책의 추천사에서 법화종 법주 김혜선 스님은, 〈묘법연화경〉은 28품 중 전편 14품에 속하는 적문(迹門)편에서 이 우주의 실상이 현상(現象)으로 나타날 때에는 각기 천차만별의 모습을 짓고 있지만 그 근본적 바탕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평등한 불성(佛性)이 있음을 관조(觀照)하고, 본문 진실편에서는 이 불성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불멸한 생명력으로, 우리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바로 이 영원불멸한 생명을 부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유통시키도록 설해진 경전이라 하셨다. 이 〈묘법연화경〉과 연을 맺은 지 50년. 나는 이 경전의 깊은 뜻을 아직 터득하진 못했지만 조선 정종 1년(1399)에 펴낸 남재(南在) 발문본으로부터 정조 23년(1799)에 순천 송광사에서 발행한 한글 혼용본까지 72종 103책의 한적 〈묘법연화경〉을 나의 서재에 두고 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영취산에서 설하신 말씀을 요진(姚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묘법연화경〉이란 제목으로 번역한 지도 1589년(406), 우리 나라 간경도감에서 윤사로, 황수신 등이 왕명으로 한글본으로 번역한 지도 531년(1464)이 된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종교적 생명을 설법한 것으로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를 영원토록 간직할 것이다.

영원불멸·평등한 불성밝혀
어린시절 '절살이'때 첫인연

고형곤·이기영·한갑진·이원섭

교계 어른들 '저술 노익장'

선사상 등 무게 있는 내용… 젊은 필자 분발 촉구

불교계 '어른'들의 연구·집필 활동이 활발하다. 전서울대 인문대학장과 역경원 역경위원을 지낸 고형곤박사(90·학술원회원)를 비롯 이기영박사(74·한국불교연구원장), 한갑진씨(72·한진영화사대표), 이원섭씨(72·시인) 등이 상반기중에 그동안의 연구와 집필성과를 묶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모두 고희를 넘긴 이들은 선·불교사상·경전 등 무게있는 저작을 내놓을 예정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올해 6월 90세 생일을 기해 고형곤박사가 펴낼 책은 〈선의 세계〉(운주사). 71년에 나온 같은 제목의 책을 보완해 '선과 현대철학' '해동조계종의 선' 등의 부제를 달아 두 권으로 펴낸다.

선과 현대철학과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해온 고박사의 이번 책은 1권에서 하이데거 니체의 철학에서 동양사상의 정수인 선과의 접점을 규명하고 있다. 2권에서는 '해동조계종의 연원과 조류' '화엄신론 연구' '추사와 백파의 선논쟁' '추사의 선관(禪觀)' 등을 통해 한국선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밝혔다. 특히 추사-백파의 선논쟁은 추사가 백파에게 보낸 편지와 백파의 〈선문수경(禪文修鏡)〉을 텍스트로 삼아 한국불교의 선지를 규명한 돋보이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고박사는 "한국불교는 불립문자에 집착한 중국선과 달리 선교겸비의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책을 낼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이기영박사는 〈원효사상연구2〉와 〈불교학개론〉 증보판을 5월쯤 잇따라 펴낸다. 〈원효사상연구2〉는 지난해 11월 열린 원효사상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자신의 논문 '원효사상의 특징과 의의'를 비롯 '문화적·종교적 원형으로서의 원효'(로버트 버스웰교수, UCLA)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권기종교수, 동국대) 등 7편의 논문을 실어 원효사상을 정리한다. 〈불교학개론〉은 기존의 것이 요점정리식이라는 단점을 보완, 상세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두 책 모두 한국불교연구원 출판부에서 펴낸다.

최근 〈2500년전의 비구·비구니의 시〉를 내놓은 한갑진씨는 〈아함경〉을 번역, 한진출판사에서 전4권으로 펴낼 계획이다. 이미 6천여매 분량의 원고를 탈고하고 교정작업에 들어갔다. 8천부를 제작해 스님들에게는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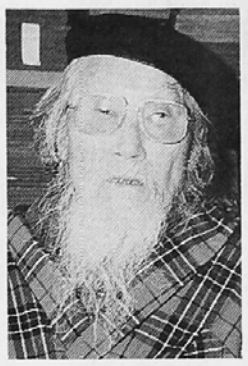
영국의 '마하보디 소사이어티'판 영역본과 한역 4아함(四阿含)을 텍스트로 삼아 한 텍스트 가운데 중복된 부분을 피해 400경을 뽑아 현대어로 옮기고 한문번역과 영역본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는 주해를 달아 이해를 돕고 있다.

한갑진씨는 "오늘의 한국불교가 찾아야 될 불교의 근본정신은 신의 개념이 아닌 '깨달은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굴절되지 않게 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번역, 출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원섭시인은 〈법구경의 세계〉를 펴낸다. 아함경 숫타니파타와 함께 원시불교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법구경 423수의 게송을 우리말과 한문으로 차례로 배치하고, 게송의 가르침을 오늘의 삶의 지표로 풀이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한문본 마다의 차이점을 팔리어 원문에 의지해 원뜻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3월중 운주사에서 출판된다.

교계원로들의 이같은 연구·집필 활동에 대해 출판계는 "출판시장 및 유통시장 개방으로 불서출판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로들의 집필은 필자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젊은 연구자와 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없는 격려"라며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성운 기자〉



◇ 고형곤박사



◇ 이기영박사



◇ 한갑진씨



◇ 이원섭씨

▲초발심자경문(지묵 옮김)=원효 지눌 야운스님의 '발심수행장' '계초심학인문' '자경문'(초발심자경문)을 쉬운 우리말 문장으로 옮겼다. 책 뒤에는 난자집(難字集)을 덧붙여 한자에 생소한 한글세대의 이해를 도왔다. 〈우리출판사, 4.6배판 2천5백원, 32절판 2천원〉

▲금강경(리즈니쉬 강의)=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설하고 있다. 〈태일출판사, 7천원〉

▲무상을 넘어서(송석구 지음)=동국대 총장인 저자가 불교이론과 체험을 토대로 '불교는 중도를 통한 참다운 본성자각을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일깨우는 수상·시평집. 〈사사연, 6천5백원〉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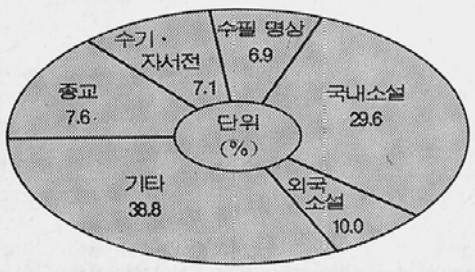
▲살아있는 국토박물관(고려·조선편, 안정애 지음)=사찰과 폐사지 박물관 등의 유물유적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역사를 배우는 문화답사기. 여주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 전국의 54개 지역의 유물·유적을 찾았다. 부록으로 27개 박물관의 길안내를 자세히 실었다.〈심지, 6천원〉

▲나를 보게 하소서(현장 지음)=염불선을 10여년간 수련지도해온 저자의 염불선 수행지침서. 전통적으로 염불이 구복·기원의 성격을 가져온데 반해 이 책은 염불을 통해 복을 찾는 본질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염불 본래의 뜻을 복원하고 있다. 〈민족사, 5천5백원〉

구독문의 737-8881

일반인 종교서적 선호도 높다

국민독서조사 지난해 7.6% 1년새 2배이상늘어



◇ '94 성인의 독서 분야별 선호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종교서적 선호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가 지난해11월 9일 부터 20일간 전국의 20세 이상 남여 1천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종교서적 선호율은 7.6%로 93년 3.5%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서적 선호 연령층은 소설을 좋아하는 젊은층보다 40~50대의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분야별 독서선호는 국내소설(29.6%) 외국소설(10.0%) 종교(7.6) 수기·자서전·전기(7.1%) 수필·명상집(6.9%) 등의 순서로 여전히 소설류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국민들의 도서구입 정보원은 신문·잡지의 신간안내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서점(14.9%), 주위사람 추천(14.1%), 신문.잡지 광고(12.4%), 서평(9.7%)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독서량은 1인 평균 9.5권으로 93년(11.3권)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도 13.2%나 됐다.

< 화엄경 > 3천질 판매
민족사, 발간 넉달만에

지난해 11월 펴낸 무비스님 완역 〈화엄경〉(민족사, 전12권)이 발간 넉달만에 판매부수 3천질(낱권 3만6천부)을 넘어섰다. 법보시에 의한 다량일시판매가 아닌 순수판매를 통해 3천질을 넘어서는 판매고는 불서출판계에서는 매우 드문 기록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2	알기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3	선체조 108	혜원	가람기획
4	인연이야기	법정	불일
5	오직 그대 자신을 …	나라다	경서원
6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불광
7	전통사찰-서울	최원식 외	사찰문화원구원
8	미라래빠의 십만송	이정섭 역	사공사
9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	효림
10	능엄경	김재두 역	민족사

구입문의:(02)737-0695

을해년 참회산림대법회 및 초발심자경문(大·小) / 지묵 지묵스님이 들려준 불교이야기 출판기념 법회

본 수효사에서는 을해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참회산림대법회를 봉행하오며
아울러 전국의 학인들을 위하여 《초발심자경문》을 법공양하오니
이 뜻있는 참회산림대법회와 출판기념회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참회삼림법회 중
① 《초발심자경문》 강원 및 학인들에게 보내주기 (1구좌 54권, 2구좌 108권)
② 1080배 참회 기도 ③ 참회진언 일만배 및 1종식

❖ 참회삼림대법회와 출판기념 법회
3월 1일(음 2. 1) 오전 10시 30분 법사 : 지묵 스님 (초발심자경문 강의)
3월 2일(음 2. 2) 오전 10시 30분 법사 : 지묵 스님 (초발심자경문 강의)
3월 3일(음 2. 3) 오전 10시 30분 법사 : 지묵 스님 (초발심자경문 강의)

※ 《초발심자경문》 법공양을 원하거나 필요하신 분은 불서포교회(☎ 313-3060)로 연락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 효 사 (☎ 313-3060 · 3037)

제14차 성훈따주기

조상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차멀미에서 중병에 이르기까지
삼능침 하나로 간단,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갑자기 발생한 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민간 전통 요법인 따주기는
누구나 배우기가 쉽고 활용은 간편,
효과는 부작용이 없어 100%이다.

※수료 후 따주기 자격증 발부.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지도 : 무구스님 (수효사 원장)

제3차 사군자강의

사군자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소재로 그린 묵화를 말하며 정신집중과
마음수양에 으뜸가는 정신수양법이다.
또한 전통적인 옛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물을 깊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정서활동이다.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지도 : 윤 산 (국전 심사위원)

고통받는 사람은 오시오!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대에도 몸이 아파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일상생활에서 민간요법을 터득,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은
성훈 따주기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잔병에 시달리지 마시고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봉사기간 ➔ 1995년 2월 21일
~5월 31일(100일간)

성훈 따주기 공덕회 일동
문의전화 ☎ 313-3060 · 3037

'95 미술의 해 2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불화의 현대화

이제 불화(佛畵)는 더이상 사찰에서 사용하는 예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불화는 가정에 걸어 두고 감상할 수도 있고 회관이나 사무실에서도 늘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화의 현대화'에 대한 관심은 불화가 갖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화단과 감상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그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즉, 불화는 예배의 대상으로 존중되기도 하지만 경전을 해석해 대중을 교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기능도 갖고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화는 각종 탱화나 번상도처럼 사찰 벽면을 장엄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들어 전통 불화의 원형을 현대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불화가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전통불화의 원형을 새로운 불교미술의 개척이란 측면에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작가로는 손연칠(동대교수)씨와 김의식씨가 꼽힌다. 손씨의 경우 오랫동안의 불화그리기 공부를 토대로 우리시대의 불화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손씨는 전통불화의 붓질이나 색조등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정신 세계와 인류공동의 과제등을 작가적 안목으로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김의식씨의 경우도 "모본에 의존한 탱화 개념의 불교미술을 작자정신이 농익은 새로운 해석의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은 불화의 대가를 이룬 스승 아래서 다년간 정통기법의 불화그리기를 수업 했다는 점이다. 즉, 그러한 수업을 토대로 불교미술의 새지평을 열기 위해 불화에 대한 감상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화의 현대화가 실현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정통기법의 충분한 습득임을 암시하는 예이기도 하다.

불화그리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통토대로 새 지평 열길
대중감상·교화대상 돼야

일부 문화강좌에서 불화그리기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만봉스님등 대가의 문하에도 불화공부를 하는 신도들이 다수 몰려들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전통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의 반영'이 전제된 불화의 창작의욕으로 승화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종교미술로서의 불화는 그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불교적 해설이 따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불화의 현대화, 우리시대의 불화 그리기 그리고 그 감상자의 인식제고와 저변 확대. 이 같은 과제는 작가와 감상자 모두가 고정관념 혹은 인식의 한계를 벗어날때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태〉

"우녀되어 수미산 오를터"

'수미산' 삽화 새로맡은
조 향 숙씨



◇조향숙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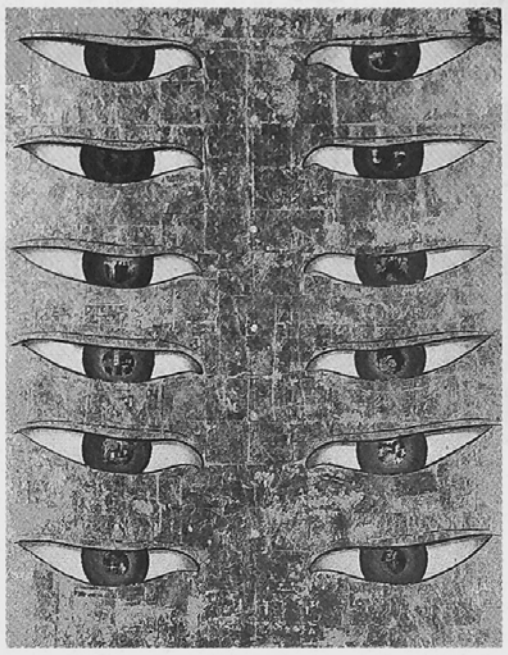
'현대불교' 10면에 인기리에 연재중인 고은 불교소설 「수미산」의 삽화를 최규일씨의 개인사정으로 이번호부터 조향숙씨가 맡는다.

조향숙씨는 서울수도여자사범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나와 국전에 다수 입선했으며 불교미술대전에서도 세차례 입선한 재능있는 화가다. 조향숙씨는 뢰치(돌부스러기에 돋은 풀)동인회원으로 수차례 회원전을 가졌으며 석도륜선생으로부터 그림공부를 20년이상 해오고 있다. 경전과 시경등을 통해 불교와 동양정신을 공부하며 자신의 화력을 다지고 있는 조씨는 현재 무학여고에 재직중이며 오는 4월에 열릴 「보살과 강산」을 주제로한 뢰차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섬세한 필선과 독특한 색감으로 이미지 강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고은 선생님의 큰 작품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는 조씨는 "나도 우녀가 되어 독자와 함께 수미산 정상까지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오늘의 감로탱화' 첫선

손연칠 교수 첫 개인전
22~28일 공평아트센터



◇손연칠작 「천수천안 관세음보살」(167×133)

감로화의 전통 위에 표현되는 우리시대의 불교미술이 소개된다.

손연칠교수(동국대)가 마련한 첫 개인전 '감로화전'이 그것.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공평동 공평아트센타에서 열리는 손교수의 개인전은 불교 전통 화법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신선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점의 작품을 내놓는 이번 전시회는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감로화를 우리시대의 감로화로 연결시키려는 작가의 숙제풀기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손교수는 전통과 창작의 측면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는게 전시회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손교수의 작품에 대해 "불화의 전통을 충분히 연마한 후 자연스럽게 다기오는 창조적 실험정신의 반영"이라고 격찬했다. 또 미술평론가 윤범모씨도 "피안을 꿈꾸는 구도자의 심경과 같이 현실세계의 여러 모순에 대한 비판적 검증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뒤늦게 첫 개인전을 여는 손교수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나와 석정스님의 문하에서 불화를 공부했으며 79년 전통공예전 장려상 80년 불미전 총정상 등을 수상했다. 그밖에 다수의 회원전과 주제가 있는 그룹전에 작품을 내놓으며 불화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기아·전쟁등 충격영상
전통문양·색채로 용해

수 많은 눈의 형상 속에 숨기듯 담아낸 우리시대의 처참한 현실들이 진지한 문제의식으로 전해지는 3백호 규격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교룡사고, 기아, 전쟁, 음주, 화투노름 등을 전통 문양과 색채 속에 용해 시킨 '유니세프 지장보살' 등의 작품이 주는 충격적인 실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가를 묻기도 한다.

불심시심 〈12〉

하늘가에 지는 산

野暗烟如織 (야암연여직) 천으로 깔린 연기, 들은 컴컴하고
沙明月似鋪 (사명월사만) 활 같은 달에 모래는 빛나다.
木喨江不盡 (목소강부진) 나무 성글어도 다함 없는 강
天外落三山 (천외락삼산) 아득한 하늘 끝 삼산이 침몰하네.

이 시는 조선조 서산대사 청허(淸虛)스님의 시이다. 스님은 역대 어느 스님보다도 큰 스님으로 일컬음에 주저 없지만 시인으로 꼽힘에 있어서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분량으로야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작품 하나 하나가 시 자체로서의 품격을 깊게 간직하고 있다. 스님이기에 선기가 넘쳐나는 시도 많지만, 시 자체로서 성공된 작품이 모두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윗 시는 경기도 가평(加平) 여울 가에서 자면서 지은 시다. 시어에서 보이듯이 한 폭의 그림같은 풍경을 비단처럼 짜놓은 시다. 끝없이 수평으로 내닫는 시상이다. 들을 따라 평행으로 깔려 있는 저녁 연기는 한 폭의 비단을 펴 놓은 것이다. 백사장에 사선을 긋는 달빛, 그 달은 활등같은 반달이다. 어쩌면 달빛이 화살이 되어 모래를 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달빛을 받은 백사장은 반짝이는 흰 빛을 이쪽으로 되비치는 화살 빛으로 보내는 것일 것이다. 오는 사선의 빛 가는 사선의 빛 그 중심점에 서 있는 수직의 가을 나무, 잎이 없어 앙상하지만 강물은 사선과 사선, 수직의 선, 그 아래 수평을 긋는 또하나의 선. 이 끝 없는 수평의 선에 또 수직으로 침몰해 가는 두서너 봉우리의 수직선, 그야말로 선과 선, 율과 율이 종횡으로 얽혀 짜여지는 한 폭의 비단이다.

감정이 없이 풍경으로만 서술된 것 같지만 없는 듯이 있어 풍부한 정을 느끼게 하는 담박한 시다. 역시 흐르는 강물과 같은 물맛이 짙다. 정은 느끼려하면 오히려 흐려지는 것이다. 담담 그 자체가 바로 삼라만상의 무한의 정인 것이다. 이 시는 이러한 무한의 정을 느끼게 한다. 삼라만상에 함축되어 있는 우주의 진실된 정을 느끼게 한다. 알아도 앎이 없고 만나도 만남이 없는 것이 진실무망의 참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광복50년 통일기원 관음송가
삼보사, 서울 회향무대…4월8일 세종회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광복50주년기념 민족통일 기원송가」가 4월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마당잔치로 꾸며진다.

창작 국악교성곡 천수천안 관음송가로 93년 7월부터 '한라에서 백두까지' 공연을 개최해 온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주지 지원)는 광복50주년을 맞아 제8회 서울공연을 마련, 남북을 하나의 흥으로 순화하는 대공연을 마련한다.

이날 무대는 총 3악장으로 구성되며, 지원스님의 글에 번규백씨가 작곡한 국악교성곡 「천수천안 관음송가」를 변규만씨의 지휘로 삼보사 관현악단이 열창한다. 제 1악장에서는 대각사합창단, 관음사합창단등 6개합창단의 찬조출연으로 예경·찬탄의 민족통일 기원송가가, 제 2장에서는 삼보사무용단의 통일의 춤이, 제 3악장에서는 삼보합창단의 민족통일 발원송이 연주된다. 이날무대에는 삼보사의 180여 단원외에 찬조출연 합창단 250여 단원들이 참여해 민족적 사업으로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공연실황은 라이브음반과 영상으로 제작 보급된다.

이 행사를 이끄는 지원스님은 "노래는 만인의 흥이다. 흥겨움 속에는 미움도 사랑도 선도 악도 없다"며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이 하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45개강좌 내달개강
불교문화센터

진흥원이 운영하는 불교문화센터 제10기 강좌가 3월6일부터 문을 연다.

수강생은 5일까지 모집하며 개설과목은 모두 33과목 45강좌이다.

어린이, 청소년, 주부, 직장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문화센터에서는 일반 문화강좌에서는 접할 수 없는 각종 경전강의, 선강좌, 문화재교실, 불화교실, 수지침, 민요, 꽃꽂이, 요가, 건강기공등 다양한 영역을 배울 수 있다. 강의는 12주간 계속되며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 : 703-0108〉

아동극 '손오공과…' 공연
내달 3일부터…단원도 모집

불교극단 바탈(대표 현장)이 아동극 「손오공과 발오공」을 3월3일부터 18일까지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공연한다.

기간중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4시, 3차례씩 공연하는 「손오공과 발오공」은 이하기씨의 극본을 조정씨가 연출한 작품. 손오공, 발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만나 모험을 하는 이야기다. '손오공'의 새로운 모습으로 꾸며진 이 연극은 어린이들에게 새세계를 향한 꿈과 상상의 시간을 안겨다 준다.

한편 극단 바탈은 불교를 바탕으로한 공연 예술의 내일을 개척해 나갈 단원을 모집한다. 분야는 연기, 조명, 분장, 무용, 음향, 기획등이며 고졸이상 남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기간은 3월19일까지.

(문의:722-0205)

차생활교육원 강좌

한국차생활교육원(원장 감승희)은 95년도 1학기 개강식을 3월 4일 오후 3시에 교육원에서 갖는다. 강의 내용은 「한국차문화」「행다실습」「전통예절」「한복 바로입기」「제다실습」등이며 차와 전통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732-9027〉

돈황벽화 대구전시회

돈황 벽화전이 14일부터 26일까지의 일정으로 대구 동아쇼핑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돈황화원(돈황벽화 모사 전문인단체)의 노력으로 묘사된 벽화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서울 대전 울산 부산 순회전에 이은 행사다.

만봉스님등 작품출품
종승연구기금 마련전

태고종 종승연구 기금마련을 위한 특별전이 22일부터 28일까지 관훈동 조형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에는 만봉스님, 이인섭, 홍창원, 김영민, 최성규씨의 불화와 회화작품이 전시된다.

〈문의:739-4643〉

'세계의 문화유산' 어떻게 선정되나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나눠진다.

문화유산의 신청은 각국이 대표적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신청하고 WHC가 비정부기구인 국제문화재유적지연구협의회(ICOMOS)에 평가를 의뢰해 진위여부와 실제의 조사된 신청 유산들은 다시 WHC의 사무국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전문가의 평가 보고서외에 각국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자료 검토후 최종심의를 거쳐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꼽히게 된다.

지난해 말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의 문화유산을 등록시킨 나라는 95개국이며 유산은 4백11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등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 복합유산이 합쳐진 신청현황이다.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관련 기준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24조에 따르고 있다. 이 지침은 독특한 예술적성취나 창조적 천재적능력에 의한 결작, 중요한 역사적 단계를 밝히는 약식의 건물이거나 건축군등의 6개항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ICOMOS의 전문평가단도 디자인, 재료, 위치등의 진위여부가 분명하고 추측에 의한 것은 배제한다는 등의 기준을 세우고 평가에 들어간다.

이같은 조건과 기준에 하자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신청문화재 3건은 93년 9월30일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94년 12월11일~17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18차회의에서 접수 승인을 얻었으며 지난 5일~12일까지의 현지조사도 마무리된 단계다.

우리나라가 신청한 3건의 문화재는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회의(6월 파리에서 개최예정)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이어 최종 심의 확정은 금년 12월4일~12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릴 19차회의에서 내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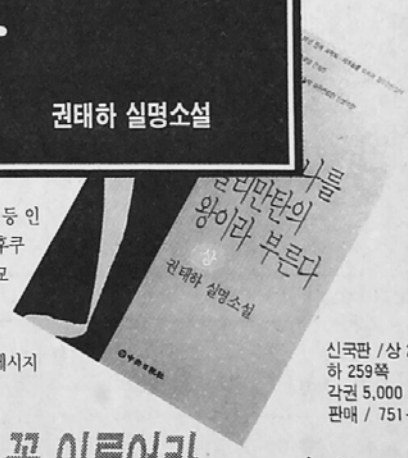
WHC, 신청받아 현지조사후 심의
현재 中·日등 95개국 4백11점 등록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기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방송단신

장애인과 사찰순례
BBS '꺼지지않는 …'

장애자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불교방송 '꺼지지않는 등불' 에서는 오는 3월 5일 장애자들과 함께하는 사찰순례를 떠난다.

장애인들과 함께떠나는 이번 사찰순례는 비장애인도 동참 환영하며 특히 자원봉사하실분과 차량봉사하실분의 참여와 따뜻하게 맞아줄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02)705~5245

윤청광씨 재 집필
BBS 고승열전

불교방송의 '고승열전'을 최고 인기프로로 구축한 윤청광(동국출판사 대표)씨가 지난 13일부터 '진각국사'편을 시작으로 고승열전 집필을 다시 맡았다.

8일 개국 축하 법회
불교방송 부산지국

불교방송 부산지국 개국축하 기념법회가 지난 8일 오후 6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개국 기념행사
28일리셉션, 1일고불식

불교텔레비전 개국축하리셉션이 오는 28일(화)오후6시 신라호텔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다.

개국고불식은 내달1일(수) 오전10시 불교텔레비전 15층에서 봉행된다.

제1차 정기주주총회
3월 9일 향군회관

불교텔레비전에서는 3월9일(목)오후2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불교텔레비전으로 공식명칭변경

불교텔레비전은 회사공식명칭이 외래어 표기법과 상이함에따라 2월15일부로 공식명칭을 '불교텔리비전'에서 '불교텔레비전'으로 변경했다.

'일본속 …'프로 제작
btn·조선일보 공동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는 조선일보사와 공동기획으로 '일본속의 한국문화'를 제작하여 MBC-TV에 3·1절 특집으로 '청소년 일본고대사 탐험'을 내보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달 6일부터 12일까지 일본적역에서 제작됐다.

신선한 영상 볼거리 다채
국내외 불교 "클로즈 업"

btn 개국특집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불교텔레비전이 예정대로 3월1일 개국된다.

영상포교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이날 불교텔레비전은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3월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지는 개국 특집 프로그램을 미리본다.

◆달마가 서쪽으로간 까닭은(2-4일,19시40분~20시30분)

1930년 하와이에 전법사로 파견된 진오스님이 사탕수수밭에가 잡일을 해야했던 미국.

다종교 사회에서 하나의 실험장이였던 미국불교의 오늘모습은 어떨까?

막연하게 생각해온 미국의 모습은 버클리에있는 세계적인 서점과,불교학자 3천명, 불교논문만도 2천여편에 이른다는 놀라운 장면으로 드러난다.

또 미국전역에 산재한 한국불교 주요사찰과 불자,석학과의 만남도 보여준다.

36일간의 촬영일정에서 34일간 비행기를 타는 강행군을 거듭한 제작팀이 생생히 취재한 미국불교의 신행과 성과를 안방에서 함께할 수 있다.

◆일본속의 한국불교(2-4일, 오전10시10분~11시)

일본에 살아숨쉬는 한국불교의 숨결을 찾아떠난다.

일본최초의 불상인 미륵반가사유상과 백제후손의 맥이 살아있는, 누워있는 비조사 대불이 따뜻하게 시청자를 맞이한다.

교또,나라,후지산,대마도,동경,오사까 등지를 찾아 백제와 부여의 선조문화를 되짚어보는 다큐멘타리이다.

제1부에서는 한반도를 떠나 일본 비조문화를 꽃피운 14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게하고,2부에서는 도래인의 숨결을 느낄수있는 현재 남아있는 불상들과 전해진 문화문물을 하나하나 소개해준다.

3부는 동대사를 중심으로한 일본불교의 역사와 실생활에 밀접한 일본불교의 실천모습을 보여준다.

◆백남준 비디오 쇼(1일 12시 10분~ 13시 10분)

부처님이 TV로 나투시는 모습을 환상적인 기법과 음악으로 처리하여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특급 비디오쇼이다.

세계적인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의 작품 'TV 부처님'은 일년전부터 불교텔레비전 개국축하를 위해 제작한 첨단영상의 꽃 비디오 쇼이다.



◇ 불교텔레비젼의 개국특집 「일본속의 한국 불교」 제작장면.

백남준씨가 비디오세계로 시청자들을 초대하여 대담을 나누며 축하와 기쁨을 함께한다.

◆한국사회와 불교의 역할(1-4일,22시~22시55분)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들이 총망라된 불교텔레비전 개국특집 4회연속 특별 좌담이 열린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이번 좌담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불교의 역할은 무었인가,환경보호를 위한 불교적 실천방안은 어떤것인가,종교백화점화된 이사회 과연 올바른가, 현대인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라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불교2600년(2-4일,13시30분~14시20분)

분소의 한벌과 바리때 하나로 인도전역을 누비고 계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의 불자들이 찾아가는 구도영상기행 불교2600년은 부처님의 체취가 가득한 프로이다.

BC 563년 불교의 기원은 시작되고 남쪽으로는 스리랑카,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및 서역,중국,한국,일본,태국에까지 전파된 불교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를 볼 수 있다.

◆높은산 깊은절(1일,19시20분~21시)

항공에서본 푸른바다가 시원하게 들어오고 마니산에서 출발한 강화도의 모습이 천천히 클로즈업된다. 음악이 흐르고 폐허가된 고려궁터와 팔만대장경 관목장소인 선원사지가 보이며, 한많은 역사를 느끼게한다.

화면은 산등성이를 넘어 전등사의 전경이 들어오고 개그맨 최영준씨가 아들에게 전등사의 역사와 얽힌 이야기를 잔잔하게 들려주어 전등사에 천천히 몰입한다. 3일간 경찰청의 헬기협조로 이루어진 '높은산 깊은절'은 공중에서 사찰을 조망하여 평면적인 도량의 모습과 색다른 맛을 느끼게하는 항공촬영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주요사찰을 찾아가는 이 프로에는 개그맨 최영준씨(강화도지역),탤런트 박순천씨(충청도지역),가수 박선미씨(전라도 지역), 여행전문가 윤강영씨(강원도지역)가 출연한다. 〈김원우 가자〉

英에 불자 자녀 위한 학교 문열어
브라이튼 지방 …오계·반야 자비정신 등 교육

불자 자녀들이 다닐수 있는 학교가 영국 브라이튼에서 1994년 9월 13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교 축하 행사에는 달라이 라마의 사절을 비롯하여 FWBO(서구 불자회), 상좌부, 선불교 등의 불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교실은 빅토리아풍의 테라스가 달린 건물의 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가능하면 1~2년안에 학년 수 및 건물의 크기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사들은 수년간 불교 수행을 해 온 사람들이며 교과과정은 오계, 반야와 자비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규 교과 뿐만 아니라 명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학교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운영되므로 더 많은 후원자를 기대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외통신

법화경 전7권 사경
카, 서광사 19일봉안

캐나다 밴쿠버 서광사에서는 서광사의 원만한 불사 성취를 위하여 한암스님이 법화경 전7권의 사경을 마쳤고 오는 2월 19일에는 법화경 봉안 법요식을 봉행한다.

새 이사장에 정산스님
LA 불교방송

LA불교방송 제6차 이사회가 지난 1월 21일 LA 금강사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1994년의 결산보고 및 새이사장선출을 안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새이사장에는 만장일치로 LA 수도사 주지 정산 스님이 선임되었다.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남가주 불교발전은 화합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며 대중화합을 통하여 모두가 동참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국교생 불교비디오 교육
영국 서구불자회 제작

서구불자회(Friend of Western Buddhist Order)의 비디오 제작 기관인 클리어 비전은 최근에 국민학생들을 위한 야심작을 완성했다. 바로 국민학교에서 종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시리즈물 제작이 그것.

이번 기획은 종교 교육에서 비디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믿을 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체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영국에 있는 6가지 주요 종교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당국의 계획에 따라 교실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가 도입될 예정이다.

인도 '산적여왕' 데비 개종
여성운동 앞장다짐

인도의 〈산적여왕〉 풀란 데비가 14일 힌두교의 카스트제도가 여성과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에 반발, 불교로 개종해 화제.

풀란 데비는 부자등 카스트 제도의 지배계급을 약탈, 살인, 유괴해 인도 하층민의 우상으로 존경받고 있다.

그녀는 81년 20명을 칼빈총으로 학살한 혐의로 11년을 복역했는데 교도소를 방문한 불교승려의 설득으로 이번에 남편과 함께 개종. 데비는 '앞으로 여생을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싸우는 데 바치겠다' 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였다.

〈박미영 기자〉

잇따른 격려…"시청률 고조 확신"
불교텔레비전 시험방송 반응 좋아

지난 1월5일부터 이달28일까지 55일간의 전송기기와 프로그램위주의 시험방송결과 대부분의 불자들은 방송기간동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텔레비전이 불교전문채널에 기반한 소재의 다양화를 추구할 경우 여타방송에 비해 높은 시청률을 확보할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평가를 받고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서울 방배동의 김종호씨(42)는 "종교채널이라는 선입관을 떠나 따뜻함을 느낄수 있어 상대적으로 호감이 간다"며 "방송을 시청하다보니 다른 채널보다 내실이 있어서 좋았다"고 시청소감을 밝혔다.

이와관련, 불교텔레비전 관계자는 "시험방송시 불자들의 격려와 충언이 많았다"고 전제한뒤 "자신감과 시험방송 노하우로 불자들의 관심에 부흥토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불자의 바른신행을 선도하게될 불교텔레비전은 매일 오전 10시~15시,오후 18시~23시까지 하루10시간 매주 총 70시간 불교교리와 문화의 우수성을 선양케 된다.

btn 부산지사후원회 창립 법회성료
회장 이윤근씨취임, 광주·대구등 곧 결성

불교텔레비전 부산지사후원회가 지난10일 사장 태응스님, 범어사주지 정관스님,우관수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코모도 호텔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부산지사 후원회 창립법회에서는 불교텔레비전 부산지사 후원회장에 이윤근씨가 취임하고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응스님이 운영위원 43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한편 불교텔레비전은 부산후원회 결성에 이어 광주,대구,대전에 1차적으로 후원회를 빠른시일안에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부산BBS「반야의 샘」 진행자 곽만연 교수

매일 오후 4시10분이면 어김없이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부산·경남지역 청취자들의 귀를 스피커 앞으로 모으는 「반야의 샘」진행자 곽만연교수(부산 동아대).

곽교수는 불교문화재 소개, 불교행사 안내, 불교단체 탐방, 지역 곳곳에 얽힌 불교설화등의 흥미롭고 재미난 내용으로도 엮어 나갈 것을 귀띔한다.

"「반야의 샘」에서는 지나치게 종교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불자들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공할 방침입니다"라고 진행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필〉

"LA 교포중 불자 5·개신교 75%"
승려·목사는 30배 차이 …대책시급

신상철씨 주장

해외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계획적인 인재양성, 제도적 지원, 외국어 교육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대불련총동문회 신상철 사무국장이 지난 14일 청년여래회(회장 박진우) 주최 정기 법회에서 「해외불교의 오늘: 미주지역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한 것.

신상철씨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65년 서경보스님의 미주 진출과 72년 이한상거사의 주미 삼보사, 숭산 행원스님의 나성 달마사 건립 이래, 미국내에는 약 60개, L.A.근교에는 약25개의 한국사찰이 생겨났지만 L.A.한인교회·수가 7백여개임을 감안할 때 한국불교의 미주 진출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목탁소리

이경숙 〈취재1부 차장〉

정화회관 철거유감

꼭 2백년 3백년 이상 된 건물만 문화재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하는가.

조계사내에 있는 불교정화기념회관(정화회관)이 곧 헐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이건물은 지금은 초라하기 그지 없지만 1957년 불교정화를 기념해 신도들의 보시로써 힘겹게 세운 기념물이다. 지금 회관안에는 조계사 종무소·신도회, 중앙승가대 동문회, 전승련 사무실 등이 들어있는데 4월말까지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다고 한다. 건물을 허는대로 그자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만불전을 새로 세울 것이란 소식이다.

지난해 취재차 경기도에 있는 ㅊ사에 간 일이 있다. 총무스님과 얘기중 마침 경기도청 문화재과 의 공무원 두명이 나 왔다. ㅊ사 법당이 너무 비좁아 신도들을 다 수용 못하니 헐고 새로 확장 신축할수 있게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해 달라는 스님의 요청에 문화재과 직원은 난색을 표했다. 비록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건물이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스님은 "문화재도 아닌데 어떠냐"는 항변이었다. 그 법당은 조선시대 말에 지어진 건물로 ㅊ사 건물중 그래도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

대형 건물불사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전국에 있는 조선시대말~해방까지의 사찰당우들이 헐리고 확장 신축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단지 "문화재도 아닌데 뭘 …" 이런 사고방식때문에 아담하고 나름대로 역사성을 띤 법당들이 수없이 사라졌다. 사찰을 포함해 모든 건물들이 그 시대,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때 훨씬 뒤에 조선시대말~해방사이에 지은 사찰들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지 못할지 모른다. 오는 광복절을 기해 철거를 시작한다는 중앙박물관 건물도 철거보다는 의미를 부여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 소신이다.

1백억원이 든다는 철거비용을 좀더 유용하게 써야 될것 같고 아우슈비쯔 유태인 포로수용소가 왜 지금껏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정화회관도 그대로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았으면 한다.

불교성지순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 출발 :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 140만원
- 일정 :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킷바이)-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티벳·네팔 10일

- 출발 : 4월 8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미얀마·태국 7일

- 출발 : 3월 6, 20일 · 동참금 : 135만원
- 일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페구-양곤-방콕-서울



인도·스리랑카 15일

- 출발 : 3월 7일 · 동참금 : 215만원
- 일정 : 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풀론나루와-담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1일

- 출발 : 3월 2일 · 동참금 : 165만원
- 일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얌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 출발 : 3월 10일, 24일 · 동참금 : 108만원
- 일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담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 3월 19일 · 동참금 : 85만원
- 일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 출발 : 3월 17일 · 동참금 : 65만원
- 일정 : 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수준) 2인 1실 수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代)

새내기 포교 대불련 열기 '후끈'

염주선물·茶공양·홍보책 배포등 묘안백출
운동권 탈피 신앙강화…교계지원 아쉬워

새학기를 앞두고 전국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신입생 포교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신입생 포교는 이미 본고사·수학능력평가일, 합격발표때부터 펼쳐왔다. 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곽상인, 이하 대불련)전국25개지부 2백4개 대학 불교학생회 대부분은 그간 「민중불교」라는 기치아래 운동권 이미지를 보여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불교학생회는 '신앙생활의 내면화'에 주력하겠다는 자정적 분위기 아래 새로운 도습으로 새법우를 맞으려는 의욕의 열기가 뜨겁다.

연세대 불교학생회의 경우 본고사를 치던 날 아침 에비 연대생인 수험생들에게 따스한 차보시를 하면서 연대내 불교학생회의 존재를 알렸다. 이어 추위에 떨며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을 동아리 법당으로 안내하고 목탁을 치며 함께 합격을 기원해 학부모들에게 불교학생회의 건전함과 종교성을 알리는 특이한 활동들을 펴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됐다.

또 입학생들이 적어낸 신상카드를 일일이 조사해 약 8백여명의 불자학생들을 찾아내고 각 가정으로 동아리 홍보책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며 새법우들을 맞을 개강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자전문대학를 중심으로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보이고 있는 부산·경남지부와 대구·경북지부의 대학들은 새내기들에게 불교학생회 동아리를 알리는 팜플렛과 리플렛을 제작, 교내 곳곳에 배포하는 기본적인 홍보에서 부터 대학입시일과 합격발표일에 맞춰 차보시, 단주보시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전개했다. 이와함께 2월 중순부터 연등을 제작, 또다른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교내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신입생 포교는 그동안 새학기 동아리 회원모집 시기를 시작으로 펼쳐오던 소극적인 홍보활동에서 벗어나 입치철로 그시기를 앞당김과 동시에 활기를 띠어 새법우들에게 불교학생회의 위상을 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불교학생회는 이를 계기로 최대한 많은 법우를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와함께 각 대학은 대불련의 지부와 홍보자료를 상호교류하고 서로의 새내기 포교 노하우를 교환하는 등 그동안 청년불교가 침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다.

전국 각 대학 불교학생회는 3월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입생 포교에 나서는데 이어 4월 초파일, 가을 학기등 언제든지 새내기를 받아들일 창구를 열어 놓을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승가대 발전위 발족
종단인사 80여명 위촉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이 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2일 김포 이전배치도를 심의 확정한데 이어 정계, 재계, 종단인사 80여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발족시킬 계획이다.

또한 승가대는 3월 10일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스님)'의 현판식을 갖는다.



◇종단협이 주최한 제12회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에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최병렬 서울시장, 박서봉 태고종 총무원장(오른쪽 부터) 등 3백여명이 참석, 서울시민의 화합을 기원했다.

남북합동법회 추진

16일 종단협 정총 서울시민 위한 기원법회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16일 종단협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국제불교 교류 행사등 신년사업안을 확정했다.

종단협은 30개종단 가운데 27개종단 대표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남북통일과 관련해 남북합동법회와 남북불교지도자회의 및 교류를 금년중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한중일 불교교류(5월 22~23일), 제1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10월말)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종단협은 정토종을 제명하고 자은종과 미륵선종의 가입신청을 받았다.

이어 종단협은 이날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각종단 총무원장과 서울시장,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등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문화재 1백45곳
5·10월 소방훈련

내무부는 지난 14일 해인사, 경복궁, 범어사, 명동성당 등 중요 문화재 1백45곳에 대해 오는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문화재 관리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고궁과 유명 사찰등에 대해 일부 소방훈련이 실시된 적은 있으나 전국 규모로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훈련 대상 1백45곳은 법주사, 해인사, 월정사, 부석사 등 국보 13곳을 비롯, 범어사 등 보물 49곳, 경복궁 등 사적 36곳, 동래 향교 등 지방 유형문화재 32곳 등으로 역사적으로 귀중한 유물이면서도 대부분 노후화 된것들이다.

국회의사당에 법당조성

정각회등 추진 30여평규모 5월 문열어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기관인 여의도 국회의사당내에 법당이 마련된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회장 권익현)는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법당조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5월경 국회 법당을 낙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각회와 국회신도회 회장단은 최근 국회의사당 지하에 마련한 30여평의 공간에 법당을 조성키로 하고 추진안과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의사당 법당불사추진과 관련해 권익현 회장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상징성을 감안, 자체경비이외에 각계의 지원을 받아 법당을 조성하겠다"며 "국회불자들의 신심고취와 기도정진하는 법당불사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각회와 국회신도회는 신행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인근의 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갖는 등 어렵게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회법당은 동시에 1백50여명이 동참하는 법회는 물론 선방등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교계박물관 건립 구체화
각 본사 3월20일까지 계획서 제출

조계종 총무원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각 본사에 박물관 건립규모 및 예산, 건립위치, 자체예산 확보여부 등을 기재한 박물관 건립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총무원은 교구본사의 계획서 접수 후 박물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검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문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세 등의 조세감면, 전기료 할인, 설립·운영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박물관 등록은 1백점 이상의 박물관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직원 1인이상 채용, 1백㎡ 이상의 전시실과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가운데 1개의 시설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작성,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불교교양대 대표자 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지난 13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전국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16개대학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95년 포교원 사업계획과 포교사 고시에 관한 설명에 이어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교재, 교과과정, 수업일수, 학점등의 통일, 각 대학 명칭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포교원측은 전국 각 불교교양대학의 운영현황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3월경에 교양대학 운영지침을 제작,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자들도 절수운동

각 종단 가뭄극복에 동참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절수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종단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태고종은 지난 여름과 같은 심각한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불자들이 각 가정에서부터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종도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천태종은 모두가 동체대비한 마음으로 심각한 가뭄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내에서부터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쓰라고 지시했다.

진각종은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운동'을 펼칠것을 전국 각 심인당에 홍보하고 전교도들이 솔선하여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한편 관음 법화 법륜종 등의 종단들도 신도들에게 가뭄대책마련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등 슬기로운 가뭄극복을 위해 절수운동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고 나섰다.

심장병 무료검진
감로심장회 산청지역서

(사)감로심장회(회장 정일스님)가 지난 11일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국민학교에서 산청국교 전교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9차 심장병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경상대병원 최준영 과장을 비롯 7명의 의료진에 의해 진행된 이날 검진을 받은 1천1백여명 가운데 5명의 어린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정일스님은 "심장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 5명은 경상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치료를 요할 경우 무료로 수술해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로심장회는 '수안, 설봉스님 작품전시회'를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2일 '재가회의' 창립

2백여명 가입, 상임의장 서돈각박사

새 불자상 정립을 위한 재가불자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가 12일 정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2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됐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불교텔레비전사장 태응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도원스님등 종단 대표스님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김몽은신부, 국회정각회장 권익현의원등 종교·정치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재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김종서(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 고은(현대불교신문 논설고문), 이윤근박사(금정학원 이사)등 5명을 추대하고 서돈각, 이기영, 고은씨를 각각 상임의장, 이사장,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7면〉

재가회의는 창립대회에 이어 문화 예술, 사회 복지, 경제 과학, 언론 출판, 교육 학술, 포교 신행, 정치 통일, 환경 윤리, 종교 교단, 국제 평화등 10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 토의를 가졌다.

3·1절 76돌 행사 다채

'만해얼' 모임·용성백일장·바자회등

올해로 76주년 맞은 3·1절 기념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만해얼 만들기 모임'이 지난 21일 전통문화연구의 집 요철요에서 발기인모임 및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대한불교청년회는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3·1절 기념법회 및 제16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또한 대구지구도 대구 불교신행단체와 대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용성 만해 백일장 및 사상 강연회」를 오전10시 대구 중앙공원에서 갖는다.

어린이잡지 '동쪽나라'는 광복50주년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3월1일 오전 10시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3·1만세운동 재현 기념행사」와 「추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 소재 국민학교 어린이 5백여명을 대상으로 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하는 3·1만세운동등을 재현한다. 또 부대사업으로 물산장려바자회도 전개된다.

(대불청:02-738-3386, 동쪽나라:02-263-1387)

송석구 총장 27일취임식



◇송석구동대총장

종립 동국대 신임 송석구총장 취임식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동대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사장 오녹원스님을 비롯 교직원 및 학생 동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24시간 FAX상담 개통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지난 16일 전화상담에 이어 24시간 'FAX상담실'을 개통했다.

자비의 전화는 FAX상담실 개통과 함께 법률, 의료, 세무, 한방, 소비자등 각부문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단순상담에서 정보제공의 영역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FAX (02)737-8802

96세계불교대회 한국서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및 세계불교청년회(WFBY)는 지난 8일 서울관광호텔에서 95년도 정기이사총회를 개최하고 96년도에 열릴 제20차 세계불교도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결의 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을 총재로 추대했다.

원정각 대종사 1주추모

진각종(통리원장 지광)은 오는 25일 고 원정각 대종사 열반 1주기를 맞아 서울 탑주 심인당을 비롯 전국 각 심인당에서 추모불사를 봉행한다.

'붓다의 메아리' 26일 공연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가 주최하고 서울지부 학생회장단협의회(회장 남기성)가 주관하는 제44회「붓다의 메아리」가 오는 26일 승가대학 강당에서 열린다.

건전한 놀이문화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마련되는 이날 행사는 부천 원각정사, 화계사, 동대부고, 구룡사등의 중·고등학생과 일반회원 3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BBS 본연 임무 충실을"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변대용)는 지난 15일 '불교방송 신문창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불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불교방송의 신문창간을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불교방송이 전국 불자들의 염원이 깃든 공기임을 명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연닿는 佛子님에게 불성을 전합니다

재가佛子 林泉화백 수행작품

진품 연화도 8폭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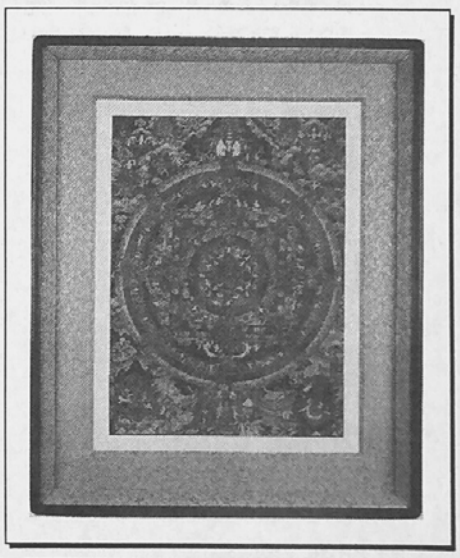


■ 작품규격 및 특징
- 높이 : 5자 5치(약 167cm)
- 폭 : 12자(약 364cm)
- 재질 : 고급스기목·스모사 고급비단

■ 포교특가 ₩ 42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티베트 스님 안거 수행작품

진품 만다라



■ 작품규격 및 특징
- 규격 : 가로 49.6cm 세로 56cm
- 재질 : 고급스기목·고급비단 3중 입체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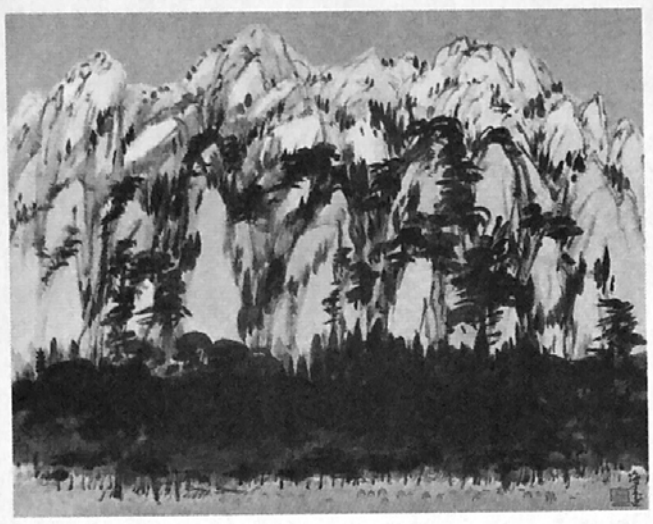
■ 규격과 작품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포교특가 ₩ 480,000

(클로버씨비스) 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 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조계사 후문)
기획 제작 三田佛事
■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산사로 가는 길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신선같은 기분에 한 없이 즐거워

내가 어려서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의 일로 생각된다. 어머님을 따라 시골에서 꼬불꼬불 산언덕을 넘어 계곡을 따라 어느 나무 우거진 산속에 부처님 계신 곳을 찾아간 일이 생각난다.

그 산 밑 동네에는 전등이 없으니 산사에도 물론 전등이란 것은 생각도 못할 때다.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이슬을 헤치면서 그 곳에 도착하곤 했다. 나는 그렇게 다녀도 절로 가는 길은 어려서와 같이 언제든지 즐겁기 한이 없다.

산중의 신선한 공기와 그때의 기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으며, 산사의 뜰에서 이것저것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하고 어른들과 스님을 따라 몇번인지 수없이 부처님께 예배한 생각은 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기원하였는지 전혀 기억을 할 수는 없다. 어머님은 필경 우리 아들 잘 보살펴 달라고 기원했을 것이다. 불공이 끝나고 공양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음식의 맛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다. 아마도 그때의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은 신선같은 기분이었던것 같다. 포식하고 나서 나는 어느 귀퉁이에서 한숨 푹 자고난 모양이 떠오른다. 희미한 등불(호롱불)밑에 어른들이 웅성거리며 무엇인지 바쁘다. 독경소리 또한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의 그 산사는 지금은 뜰도 넓어지고 전등도 들어오고 전화까지 있는 것을 몇년전에 가보았다. 어려서는 전국에 절이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 지금은 도처에 사찰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곳저곳 많이도 다녔다. 그

유년의 기억이 가득한 월정사. 서울을 떠난 버스는 강릉고속도로에서 월정사 입구표시판을 뒤로 보내며 오리(五里)숲속을 달리고 있다. 이곳도 몇년전의 모습과 좀 달라졌다.

산천은 변함이 없는것 같은데 길은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확 뚫렸다. 어려서 처음 가본 그 산사에 비하면 몇백배 더 큰 절이며, 버스를 타고 가지만 내 마음은 어딘지 신선들이 사는곳을 찾아 가는 것 같다.

전영화 〈불교미술인협회 회장〉

믿음으로 찾은 행복 ③

주부신행담

"엄마! 엄마는 불교공부한다면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거야"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을 무렵 느닷없이 11살 난 아들녀석이 소리쳤다. 나도 모르게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끼어들길" 하고 꾸짖으면서도 내심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아들녀석이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도 계면쩍은듯 고개를 돌리고는 묵묵히 시선을 TV에 고정시켰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게 해주자'고 남편과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스스로 불교속에 젖어들었다. 그런 아이를 보며 너무 조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결코 싫지는 않았다. 불법을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것은 아이에게 커다란 행복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부방이 따로 없는 아이에겐 밥상자리가 곧 화실이 되곤 했다.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선, 수십개, 수백개의 선을 흔들림없이 표현해야 하는 완성을 위한 연습은 곁에서 지켜보기에 측은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가 그 어려운 과정을 답습하는데 싫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이의 요구를 응석으로만 여겼을 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다가, 무심코 불화를 배워 보겠느냐는 내 반문에 쾌히 응낙했던 아이였다.

일주일에 한두번 선생님에게 가서 불화(佛畵)를 배우기 시작했을때만 해도 그다지 오래 가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아이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다.

'어떻게 11살짜리가 저토록 불교와 끈끈한 정을 맺을 수 있을까? 이것도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인연의 은혜란 말인가?' 아이는 이미 우리 부부에게 있어 스승이나 다름이 없었다. 함부로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삿된 마음을 먹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우린 아이가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한없이 내려 주기 위해 우리 곁에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아이의 불성(佛性)으로 인해 여러가지 화제가 오가던 어느날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제의했다. "우리도 어렵지만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부처님 원력 덕분이니 우리도 부처님 뜻에 따라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오래전부터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활에 쫓겨 말조차 못꺼냈다며 환한 표정으로 흔쾌히 내 제의를 받아들였다.

세검정에 자리를 잡고부터 그런대로 가게를 키우기 시작한 우리는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만도 2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를 넓혀왔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어렵지만 이만큼 사는것도 다 부처님 덕분이니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어떨까요"



아침 7시, 전날의 피곤했던 몸을 일으켜 세우기에도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 세 식구와 미용실 식구 모두는 차에 몸을 싣고 포천에 있는 한 고아원으로 달려갔다. 밤새도록 준비한 김밥,과자 등 먹을것과 새벽에 남대문시장에 가서 사온 옷과 장난감 병정들도 동행했다.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아이들이지만 이들에겐 한달중 이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 우린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깎아 주기도 하고 잠시지만 엄마와 아빠 누나와 형이 되어 점심도 같이 먹고, 게임도 하며 세상사를 모조리 잊으리만큼 마구 뛰고 뒹굴었다. 세상엔 눈물나는 일도, 기쁜 일도 많다지만 여기는 때때로 이 두가지가 나란히 공존하는 단절된 세상이었다.

처음 포천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자는 말을 들은 미용실 식구들은 내심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것이 황금같은 휴일을 하루 온 종일 다른 사람을 위해 할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용실 식구중에는 부처님을 믿는 식구도, 믿지 않는 식구도 있었으므로 종교적으로 유대감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미용실 식구들은 어느덧 아이들과 정이들어 돌아올 때에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되었다. 부처님을 믿지 않던 식구들도 차츰 불법을 따르며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런 우리모두는 이미 부처님 앞에서 자랑스런 불제자가 되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몸을 실은 차가 서서히 움직일 때면 아이들은 차를 따라 뛰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차문을 열고 뛰어오는 아이를 안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부처님 이 가엾은 아이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소서!'

이화자 (서울 종로구 홍지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선생경 ⑧

On four grounds the wastrel is to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a friend. He is your companion when you go drinking, when you frequent the streets at untimely hours, when you haunt shows and fairs, when you gamble.

네가지 이유에서 부랑아는 친구를 가장한 적으로 생각된다. 그는 그대가 술마시러 가거나 때아닌 시간에 환락가이 드나들 때, 구경거리나 가무를 보러갈때, 도박할 때만 그대의 친구이다.

The friends who should be reckoned as good-hearted are four. The helper, the friend who is constant in happiness and adversity, the friend of good counsel, the sympathetic friend.

마음씨 좋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네종류이다. 도움을 주는이, 즐거울 때나 고생 할 때나 한결같은 이,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구, 인정있는 친구.

The friend who is a helper is to be reckoned as good-hearted on four grounds. He protects you when you are taken unawares. He protects your property when you are not there to protect it. He is a refuge to you when you are afraid. When you have tasks to perform he provides twice as much help as you may need.

도움을 주는 친구는 네가지 이유에서 마음씨좋다고 생각된다. 그는 그대가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그대를 보호한다. 그는 그대가 없을 때 그대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는 그대가 두려움을 느낄때 그대에게 피난처가 된다. 그대가 해야할 일이 있을 때 그는 그대가 필요한 두배로 도움을 준다.

*adversity 역경, 고난

*take someone unawares 남의 허를 찌르다.

〈박미영기자〉